

## “아! 22년 전 오늘” 4.29 폭동 기념식 열려



제22주년 4.29 기념식 및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 추모예배가 풍성한교회에서 열렸다.

“불의의 사고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4.29 LA폭동 22주년을 맞이해 남가주 교계와 사회가 함께 기도했다. 이

행사는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예배

도 겸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22년 전 한인사회가 4.29의 비극을 딛고 거뜬히 일어섰듯이 지금 고통을 겪는 우리 조국과 유가족들도 아픔을 극복하고 일어설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 행사는 2012년 1월 17일 창립된 4.29LA기념재단이 주최해 김영 명예이사장, 허중 이사장 등이 각각 환영사와 기념사를 전했다. 또 스포츠월드센터-코리아타운 주민회의 의장이 참석해 22년 전 자신이 소셜워커로 일하던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폭동 이후 무려 1천여 명의 한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해 정부 혜택을 받고자 사회복지국 앞에 줄을 섰던 모습을 언급하며 “이 행사에서 화합과 이해를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종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였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힘을 가져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LA 경찰국 내

에서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지역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테리 하라 LA경찰국 부국장, 데니스 카토 서부본부 커맨더, 티나 니에도 올림픽경찰서장 등은 “4.29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비극”이라면서 “당시의 경험을 통해 경찰은 LA의 안전과 각 커뮤니티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부 순서가 4.29 기념식이었던 2부 순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추모예배였고 이 행사는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도했다.

회계 김철수 목사, 감사 정삼희 목사, 회계 진석호 목사, 고문 김요한 목사 등이 순서를 맡았고 설교는 부회장이인 이유형 목사가 전했다.

이 행사는 4월 29일 오전 11시부터 풍성한교회에서 개최됐으며 한인사회 주요관계자를 포함해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준형 기자

## ‘세월호’ 참사로 논란 중심에 선 ‘구원파’ 교리 어떻게

“회개의 가치 약화시키고, 구원 후 범죄 큰 문제되지 않아”

‘세월호’ 침몰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여기에 유명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지면서, 때마침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논란이 일었다. 유 전 회장이 소위 ‘구원파’라는 이유 때문이다.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도 구원파 신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일단 선장은 소속 교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원파는 한국교회에서 흔히 ‘이단’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과거 ‘오대양 사건’에 유 전 회장이 배후였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구원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구원파의 교리가 일부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그렇다면 구원파의 교리란 도대체 무엇일까.

“영원 구원 보장설이 매우 극단화된 형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기독교복음침례회, 곧 구원파에 대해 “기존 개신교회가 대부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는 가르침을 펴는 것과는 달리, 이미 예수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음을 깨달을 것을 강조한다”며 “그래서 주일성수, 십일조, 과중한 직분을 지우는 예배당 건물 위주의 유행교회를 거부하고 무형교회를 강조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교단은 주류 교단들로부터 신학적인 비판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신학자는 “구원파의 구원교리에선 회개의 가치가 약화되고, 구원 이후의 범죄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곧 구원 이후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영원 구원 보장설’이 매우 극단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원은 ‘죄 안에서’의 구원이 아닌, ‘죄로부터’의 구원이

다. 구원 이후의 삶은 당연히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신학자 역시 “아무리 예수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경우 하나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그와 같은 것”이라며 “믿음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정통적인 구원관이다. 그러나 구원파는 예수를 믿은 이후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의 구원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각 사람은 율법을 지키거나 인간의 어떠한 선행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말씀 통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다. 이와 같이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영원히 멸망치 않는 몸으로 변화하여 몸의 구원을 얻음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을 믿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24일 기자회견에서는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르치느냐”는 질문에 “기독교에서 그런 교리를 가진 곳은 없다”고 부인했다.

문제는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와 구원파 논란으로, 엉뚱하게 기독교 전체에 불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회 안에서야 구원파가 기독교와 별개이지만, 밖에서는 그 같은 사실 인지가 어렵고, 또 구원의 필요조차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같이 반(반) 기독교 정서가 만연한 중에는 더더욱 그렇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교인들의 모습에서 실제 ‘구원파’와 유사한 구원관이 나타난다는 비판도 있어,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김세운 박사(풀러신학교)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은혜는 싸구려로 전락해 버리고,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정통교회가 사실

상 ‘구원파적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며 “의로운 삶이 없는 청의론으로 인해, 본회교가 말했듯 싸구려(값싼) 복음과 구원파적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갑종 교수(백석대 신약학)는 “성경에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인한 구원의 안정성을 말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이들의 삶을 강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면서 “한국교회에선 전자가 보다 강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현철 교수(연세대)도 한 세미나에서 “자신의 범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모든 범죄가 소멸되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릇된 ‘구원의 확신’이 기독교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독교의 기초로 여기고 있다. 기독교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 구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기자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나라 오토 덴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세계의 중심에서 신학교육의 지평을 넓혀 갑니다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양질의 신학교육, 맑고 역동적인 영성교육, 글로벌 리더십교육, 인문학적 교양교육, 실제적인 이중 언어교육

2014년 여름계절학기·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01 학사 (B.A.), 교역학석사 (M.Div.) 과정 (온라인 원격강의 개설) Pts 여름계절학기 개강일 : 2014년 5월 26일 가을학기 개강일 : 2014년 8월 25일

02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산타페언어문화교육원 ESL 과정 Pts 여름학기 개강일 : 2014년 5월 19일 가을학기 개강일 : 2014년 9월 8일

입학 및 등록 : 본교 홈페이지 (www.pts.edu) '입학 정보실' 참조  
 입학관련 문의 : 미국 1-562-926-1023 ext.300 / office@pts.edu 한국 010-6612-1165 (담당 : 박정환 목사)  
 ESL 문의 및 상담 : 강우중 교수 (wjkwang@pts.edu)

1-20 발행 정회원 ats 준회원

총장 이상명 박사 / 이사장 김인식 목사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edu / office@pts.edu

※ Office 임대합니다. (1,300, 900, 800 sqft)



# KCCD “한인 목소리 정부에 전할 역사적 기회”



왼쪽부터 KCCD 이사장 박중대 목사, 임혜빈 회장, 그레이스 웰트만(Grace Weltman) 이사장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적 봉사 단체인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개발협회(KCCD)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백악관 초청 아시아 아메리칸 태평양연안제도(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AAIP) 기독교 지도자 제7회 Lighting the Community 전국대회 개최를 알렸다.

KCCD는 올해 5월 19일(월)에서 21일(수)까지 워싱턴D.C. Gallaudet 대학교 내 켈로그 컨퍼런스 호텔에서 전국대회를 연다. AAIP 기독교 커뮤니티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부 협력을 통해 여러 자원을 활용하고 AAIP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AAIP 기독교 지도자들은 최초로 백악관브리핑에 참석해 국가지도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정책을 건의할 기회를 갖는다. 이 외에도 총회 워크숍, 네

트워킹 및 모금행사, 조찬기도회, 축하 행사와 만찬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교회와 비영리단체가 정부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협력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백악관 신앙정책실(the White House Office of Faith-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s) 책임자 멜리사 로저스(Melisa Rogers), KCCD 임혜빈 회장, 신앙정책 센터(Center for Faith 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s) 국장 대리 아카시아 살라티(Acacia Salatti), 백악관 AAPI에 관한 발의 수석 고문 투엣 듀옹(Tuyet Duong)을 비롯한 사회정치 분야의 여러 지도자들이 연설자로 참여해 아시아 커뮤니티를 위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이민개혁, 노숙자 문

## 5월 19일~21일 “Lighting the Community 전국대회” 개최

### 아시아 아메리칸 크리스천 리더 백악관 브리핑 초청은 역사상 처음

제, 인신매매, 가정폭력, 중독, 정신건강, 저렴한 주택 공급, 외교 정책 등이다. 참가대상은 아시아 아메리칸 태평양 연안국가 기독교 공동체, 정책 입안자, 기업, 정부 주요 인사, 사회 기관, 지역 사회 이해 관계자다.

임 회장은 “이번 전국대회는 우리 목소리를 단합해서 크리스천의 목소리를 알리고 인정받기 위한 기회다. 라티노, 타인종 커뮤니티에서 이런 일을 해온 사람을 초청해 그들로부터 노하우를 배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KCCD 이사장 박중대 목사는 “KCCD는 한인커뮤니티와 타인종이 함께 일하는 기독교 기관이다. 정부 13개 부처가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들이 한 말이 있다. ‘미국 건국의 근간이 성경인데 성경을 잃어버린 데서 미국 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KCCD의 사역이 기독교의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부서에 한국어로 된 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 한국어로 된 서류를 준비하기로 결정됐다. 정부에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 이런 목

적을 갖고 일하는 기관이 한인 커뮤니티 내에 많지 않다. 이번 전국대회의 백악관 컨퍼런스를 통해 정부와 접촉할 것이다. 한인커뮤니티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금모금, 조직화, 전략 연구 전문 상담 기관 커뮤니티인모션(Communities in Motion)의 대표이기도 한 KCCD 그레이스 웰트만(Grace Weltman) 이사장은 “이번 대회는 여러 결정이 내려지는 매우 역사적인 기회다. 워싱턴에 아시아인의 목소리를 내는 다른 커뮤니티가 부재한다. 이 대회를 통해 리더십을 기르고, 어떻게 대화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아프리카 아메리칸, 라티노, 백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우리 앞서 정부와 연계하면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우리 커뮤니티는 이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고 그 중요성을 알더라도 연계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주류 사회는 우리를 보지 못한다. 여러 리더들이 모이는 이 전국대회에 참석해 그들

을 만나 우리 의견을 전달하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며 이 전국대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민개혁법, 인신매매, 정신병, 마약 등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인신매매에 연관된 인종 중 동양인이 많다. 정신병과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My Brother’s Keeper’(유색인종 청소년들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선언), 청소년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흑인, 라티노 청소년의 탈선률은 줄었으나 유일하게 아시아계 청소년들만 탈선률이 늘어났다. 또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교회와 사회의 연합을 위해 일하는 이들을 위한 시상식도 치를 예정이다”라고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회 조기등록(\$225)은 4월 25(금)일까지, 정규등록(\$250)은 5월 9일까지이며 현지등록은 \$295이다. 이 외에도 조찬기도(조기등록 \$50, 정규 \$75), 축하행사만찬(조기등록 \$100, 정규 \$150)만도 참석 가능하다.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1000 Initiative”에 등록하면 토론, 행사 및 활동에 동참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주디 한 기자

## 당뇨 전문가 송문기 박사 “아연 보충이 중요”

당뇨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송문기 박사가 1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마음제자교회에서 강연을 했다. PROZ USA 주최로 열리는 당뇨교육 세미나에서 송 박사는 당뇨에 관련해 교육을 펼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송문기 박사는 당뇨가 생기는 원인과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다수의 참석자들은 당뇨를 개선시키기 위해 아연의 보충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송문기 박사는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점은 환자 본인의 절제된 생활과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절대적이

지만, 약물요법을 보조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당뇨 치료제는 혈당조절제와 병행 복용해야 하며, 복용시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주요 수치에 대한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치료효과란 6개월 내지 1년 이상 경과해야 나타나며 당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기까지는 조절제로 조절해줘야 그 기간 안에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박사가 개발한 프로지(Pro-Z)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급격한 비만성 당뇨 환자 증가로 국가 의료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당뇨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잠재적 가치가 크게 인정’돼 이례적으



송문기 박사가 19일 오전에 한마음제자교회에서 강연을 했다.

로 특별지원 자금을 마련해 FDA 임상 진행만바 있다. 프로지는 근육세포의 대사 및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가 아연과 깊게 관련된

다는 사실에 주목해 개발됐다. 아연은 생체활동에 필수적인 무기질로 구성됐으며, 인체는 뇌, 간, 근육, 전립선 등에 약 1.5~2.5g의 아연

을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전립선에는 매우 짙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다고 학계에서 밝힌다. 인체에 필요한 아연을 섭취하려면 음식물에 함유된 유기체 유기아연을 섭취해야 하는데, 아연이 인체에 머물게 되면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 베타세포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립선 내 아연도 보충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문기 박사는 1959년 도미, 하와이대에서 생화학학 전공, 인디애나 대학에서 의학약전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당뇨치료 9개, 복부비만 2개, 알츠하이머 2개 등 총 1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문의 : 213-434-1170

손지훈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리현의대)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e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만남의교회, 최사무엘 담임목사 취임 및 임직예배 드려

##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길”

만남의교회가 최사무엘 담임목사 취임식, 김찬수 장로 임직식, 이숙희 권사 임직식을 27일 오후 4시에 교회 본당에서 개최했다.

노스리지에 있는 만남의교회는 해외한인장로회 LA노회 소속으로, 최사무엘 목사는 지난해 4월부터 담임으로 목회를 해왔다.

이날 최사무엘 목사가 “떨어진 후 죽어야 합니다”(요12:24-26)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유영기 목사(나성북부교회)와 이정현 목사(밸리서울교회)가 축사와 권면을, 조원근 목사(밸리효성장로교회)가 축도를 했다.

임직식에서 축사와 권면을 한 이정현 목사는 “주어진 직분은 세상의 임직과 다르다. 이 직분은 영원한 천

국의 직분이기에, 이분들을 통해 교회에 기쁨과 성장이 있길 기원한다”며 “먼저는 하나님 앞에 좋은 종이 되길 바란다. 좋은 권리가 없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또 좋은 권리를 주인에게 양도받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을 일이라도 해야 하며, 때로는 동의할 수 없는 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쉬운 일을 따라가지 말고 어려운 일을 함으로써 참 권사, 참 장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사무엘 목사는 1977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온 1.5세로, 칼스테이트대학에서 종교학 전공, 탈신학대학원에서 석사신학 공부,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토마스 맹 기자



만남의교회가 최사무엘 담임목사 취임식, 김찬수 장로 임직식, 이숙희 권사 임직식을 27일 오후에 교회 본당에서 개최했다.

## “상한 심령 치료하며, 땅끝까지 복음전하는 교회될 것”

라파선교교회 출범예배 드려



라파선교교회가 출범 감사예배를 드리고 선교중심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했다.

라파선교교회(문재성 목사)가 출범 감사예배를 드리고 선교중심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했다.

27일 주일 오후 4시에 문재성 담임목사의 인도로 열린 예배는 김인구 목사의 대표기도, 김승기 집사의 특별연주, 말씀선포, 라파선교교회의 사역 소개, 교회의 태동과정과 비전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빌립보서 3장 12~14절을 본문으로 “부름의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문재성 목사는 “사도바울은 감옥에서도 주님이 부르신 뜻을 향해 전진했다”면서 “관제로 자신의 몸을 드러낸 사도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가자”고 말했다. 그는 “라파교회라는 이름에 라

파는 치료의 뜻”이라며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권면했다. 이어 오덕상 장로는 교회가 태동하게 된 과정과 비전을 나누었다. 오 장로는 “성령께서 일하셔서 승리교회와 라파선교회가 하나되어서, 라파선교교회가 태동되었다”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정말 하나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2006년부터 시작한 의료선교사역이 라파선교교회 출범을 통해서 20개국의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파선교교회 성도들은 “선교중심의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나가자는 비전선언문

을 담임목사와 함께 외쳤다.

축사를 전한 석종민 목사(잠종은교회)는 “여호와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이란 뜻”이라며 “상처받고 고통받은 수많은 영혼들의 심령과 영혼을 치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했다. 예배는 한주식 목사(현대설교 연구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라파선교교회는 365일 기도가 회가 진행되며, 노숙자 선교, 감옥소 선교, 의료선교를 중점적인 사역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재성 목사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의 단동지역의 의료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안규 기자

## 월드미션대, 남녀노소 즐기는

‘열린음악회’ 연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개교 25주년을 기념해 열린음악회를 동양선교교회에서 개최한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개교 25주년을 기념해 LA 교민들을 초청하여 클래식과 컨템퍼러리의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열린음악회를 6월 6일 오후 7시 30분에 동양선교교회에서 개최한다. 음악회는 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이나 전문 연주자 중에 있거나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사회에서 왕성하게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들, 우수한 연주실력을 갖춘 재학생들, 음악과 교수들이 한데 어우러져 모든 연령층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음악과 윤임상 교수는 “교민들에게 월드미션대학교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우수한 학교 프로그램을 알

려, 앞으로 본교 발전을 위해 희망찬 비전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의무대 △삼동의 무대 △만남의 무대로 진행되는 음악회는 두명의 사회자가 이끌게 되며, 오케스트라, 밴드, 합창단 무대 등 각각의 무대로 세팅돼 조명에 의해 구별되며, 자유로운 연주회가 될 전망이다.

주요 연주자로 윤임상·황소명·김진수·이영관 교수, 김영해·김용제·김재숙·권상욱·클라라 김·오위영·길선욱·박재웅·이은정 동문, 윤국형·신선미·채영석 학생이 참여하게 된다.

문의: 213-388-1000 (월드미션대학교)

토마스 맹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진정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풀러턴지부: 1701 W Orangeforg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내셔널비즈니스 - 서부인명당)      T.213.453.6624      (아이팅아메틱)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450
4개 구입시	\$230	3개 구입시	\$555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을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 LA 고등법원 “KAPC 총회장은 엄영민 목사” 확인

## 합법적 총회장 확인하고 교단명 독점적 사용 허가해

미주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의 합법적 총회장은 엄영민 목사(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인 것으로 법원이 확인했다. 지난해 5월 제37회 총회에서 이 교단은 엄영민 목사 측과 이운영 목사 측으로 분열됐다. 당시 교단 소속 서가주노회는 이미 3곳으로 분열돼 서로 정통성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었으며 총회는 서가주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고 1년간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서가주노회 중 한 곳을 중심으로 단독 총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엄영민 목사는 제36회 총회에서 부총회장으로 선출됐다가 제37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공천을 받아 선출됐으며 반대쪽은 이운영 목사(한미장로교회)를 총회장으로 선출해 독자적으로 총회를 구성했다. 문제는 이 두 교단이 한글명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영문명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와 로고, 총회 회기까지 동일하게 사용하며 서로 정통성을 주장한 데 있다. 특히 오는 5월 총회를 앞두고 양측 모두 KAPC 이름으로 제38회 총회를 열기로 하면서 소속 노회와 교회들에 혼선이 가중됐다.

이에 엄영민 목사 측이 3월 21일 소송을 제기했고 캘리포니아 주 LA카운티 고등법원(Superior Court)은 4월 18일 엄영민 목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케이스 번호 BC540136에 기록된 이 재판에서 핵심은 “누가 KAPC의 합법적 총회장인가”였는데 조앤 오도널 판사는 엄영민 목사 측이 합법적 총회장임을 확인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운영 목사 측은 KAPC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이 이름으로 총회를 열거나 광고할 수 없으며, 임원들은 자신들이 이 교단의 정당한 임원이라고 말하거나 직분을 사칭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이운영 목사 측 소속 교회들도 KAPC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그런 암시를 줄 수 없다고 금지했다. 나아가 엄영민 목사 등이 정당하게 선출된 대표가 아니라고 부정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법원은 “이운영 목사 측은 그들이 적법하게 선출된 임원이라는 근거를 설명하는 데에 실패했다”면서 “엄영민 목사 측 임원들을 공정한 22개 노회장들의 공정한 선언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운영 목사 측이 증거로 제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미국 국토안보부로부터 받은 서한 등은 KAPC 교단의 사무에 대해 아무 것도 명시하지 않은,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맥락에서 법원은 양자 간의 또 다른 소송인 국제개혁대학교(IRUS)와 미주성산교회 사건은 초점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것(red herring)이라고 봤다. 특히 국제개혁대학교의 학위 인가기관인 ABHE, SEVIS 승인기관인 국토안보부의 서류는 “누가 진짜 KAPC인가를 다루는 이 재판에 아무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소송에서 국제개혁대와 미주성산교회가 거론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단의 이름을 누가 사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소송에서 이운영 목사 측이 두 재판의 판결을 증빙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학교와 교회는 모두 교단 소속이기에 교단 이름을 사용하는 문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KAPC 교단 관계자들이 4월 22일 기자회견에서 가처분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노회 관계자 및 교단 원로들도 참석해 엄영민 총회장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왼쪽부터)차병학 LA노회장, 안병권 남가주노회장, 엄영민 총회장, 양수철 가주노회 서기, 김강인 LA중앙노회장이 각 노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 법원은 미주성산교회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7일 이운영 목사 측 KAPC 서가주노회가 미주성산교회를 관장한다고 재산권을 인정해 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엄영민 목사가 총회장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또 국제개혁대에 대해서도 이운영 목사 측 교단의 손을 들어 주며 지난해 8월 22일 엄영민 목사 측에 접근금지명령(TRO)을 내리고 9월 10일 가처분(PI)을 확정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국제개혁대의 소유, 운영권이 이운영 목사 측에 있음을 확인했다. 단, 이운영 목사 측이 신학교를 매각하거나, 신학교 재산으로 용자를 받지 못하게 금지하고 모든 재정 출납 자료를 보관하며 5만 달러를 공탁하도록 했다. 이에 근거해 이운영 목사 측은 이 두 재판 결과가 교단의 이름 문제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법원은 “무관한 사항”이라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인가기관인 ABHE도 이운영 목사 측에 속한 박현성 총장 측만이 정회원이라 확인했고, 국토

안보부도 이쪽만 I-20를 발급할 수 있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 또한 교단 이름 문제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교단의 이름이 걸린 이번 가처분이 향후 다른 재판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크게 엇갈린다. 일단 법원이 KAPC가 엄영민 목사 측이라고 판단한 이상, 그 교단에 속해 있었던 미주성산교회의 소속이나 국제개혁대의 소유권 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주성산교회 판결은 엄영민 목사가 총회장이라는 전제를 두고 내려진 판결이었기에, 이제 법원이 그를 합법적 총회장으로 인정 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또 국제개혁대가 개교 당시부터 이 교단 산하 직업학교인 만큼 교단 소유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기에, 교단의 실질적 대표가 확정된 이 가처분은 의미가 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오는 4월 28일 국제개혁대의 소유권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상황에서 교단 명칭에 대한 가처분은 시사하

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전혀 다른 면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가처분은 엄영민 목사 측만 KAPC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이운영 목사 측이 불법 단체라거나 해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이운영 목사 측이 별도의 교단명을 내걸 경우, 미주성산교회나 국제개혁대에 관해서도 얼마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가처분이 교단 명칭 문제와 미주성산교회 및 국제개혁대 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명확히 선을 그어 놓은 상황이라, 교단 이름 문제로 이 두 소송에 대한 결과를 뒤집기엔 엄영민 목사 측도 쉽지 않은 않다. 한편, 이운영 목사 측은 이번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식 재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교단명을 바꿀 수도 있지만 가처분이 발효된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단명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김준형 기자

## 미얀마 신학생들을 위한 정기공연 성황리 개최



제 8회 미얀마 원주민신학교 장학기금 마련 정기공연이 4월 27일 오후 7시에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

제 8회 미얀마 원주민신학교 장학기금 마련 정기공연이 솔로몬대학교(총장 백지영 목사) 주최로 4월 27일(일) 오후 7시에 월서연합감리교회에

서 개최됐다. 솔로몬대학교는 9년 전에 99%가 불교도인 미얀마에 신학교를 설립해 현지 원주민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4회 동안 많

은 졸업생을 배출시켰다. 현지 신학교는 고아원과 동시에 운영 중에 있으며,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현지 교회 개척과 선교에 힘쓰고 있다. 전액 장학생으로 운영되는 현지 학교는 박영 선교사를 중심으로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 현지 장학생과 상처받은 고아들을 돕는 이번 정기공연에는 소프라노 이지은, 테너 전승철, 바리톤 김동근, 메조 소프라노 정희숙 등 정상급 음악가들이 출연했으며, 합창단으로는 한인기독교합창단, 숙명칸테모스, 코랄레움, 이화코랄, 캠퍼칼, LA 남성선교합창단 등이 출연했다. 음악가들과 합창단 단원들은 ‘내 발을 씻기신 예수’, ‘기뻐하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깨뜨린 옥합’, ‘그리운 금강산’, ‘내가 산을 향하

여’, ‘주님 앞에서’,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등을 불렀다. 연주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사회 백지영 목사, 기도 정광희 목사(성령바람교회), 성경봉독 정종윤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말씀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인사말씀 및 광고 백지영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백지영 목사

는 “최선을 다해 준비한 공연에 참여한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모든 음악인들이 한데 어울려 조화를 이루면서 울려 퍼지는 환상적인 화음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따뜻한 감동의 불씨를 피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국: 박희민, 정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이인규    편집국장: 토마스 맹  
 고문변호사: 정찬용  
 지사망: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0403 / E-mail: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Christianity Daily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2014년 미주지역 TP 1기 선교 훈련

### (Turning Point : 단기선교사 훈련)

**훈련소개**  
 온누리교회 ACTS29비전에 따라 선교지에서 1~2년간 장기선교사와 협력하면서 선교적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훈련 후 온누리교회(www.onnuri.org) 및 선교단체 TIM(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소속으로 파송될 선교사들의 훈련과정이다.

**미주단기선교사 훈련 취지**  
 1개월의 단기선교사 훈련을 위해 청년선교자원이거나 갈렙선교사 자원이 한국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던 시간적, 재정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또한 미주 선교자원을 위한 강의의 적합성을 높이는 데 있다.

**훈련목표**  
 1. 선교헌신자로서 자기 정체성과 가정, 대인관계, 삶의 비전이 확고한 성경적 가치관 위에 있게 한다.  
 2.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제반 이론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현지 사역의 기초를 닦는다.  
 3. 특히 젊은 층들이 단기선교사로서 자신의 선교적 소명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인턴십 선교사가 되게 한다.

**훈련대상**  
 1.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세례교인으로 건강한 교회 구성원인 사람  
 2. 선교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과 헌신이 있는 자로서 1~2년 선교현장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거나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3. 청년 선교 자원  
 4. 은퇴 후 선교의 비전을 품은 자(갈렙선교사-50세 이상)  
 5. 대학생 영어 교사(러시아 모스크바), TIM 사역 베이스(언어 교사, 음악 교사, 체육 교사 등)

**훈련원서 및 서류접수**  
 Mar.03.2014 ~ May.05.2014(원서 및 서류는 TIMA와 상담 후 E-mail 접수)

**훈련기간**  
 4주간 합숙. Jun.01.2014 ~ Jun.29.2014

**훈련비용**  
 담당자 문의

**훈련커리큘럼**  
 별도 Facebook 공지

**두란노해외선교회**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훈련장소 문의 및 연락처**  
 Tel. 1-213-200-5202  
 E-mail: tima061204@gmail.com  
 Facebook: http://www.facebook.com/Acts29TIMA  
 Address: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90015



# 회복의 기쁨을

## 스바냐 3:14-2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개인이나 국가나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실 때에 그 대상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면 그들을 가장 소망적이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분배 받으시도록 받아 누리시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이 둔해지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즉 죽은 신앙의 사람들에겐 육신과 정신, 경제적인 환란과 시련을 겪게 하심으로 견디기 어려워사라도 죽지 못해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냈던 믿음을 바로세우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합니다.

### 1. 죄와 심판

스바냐서는 하나님이 섬기신다는 뜻의 스바냐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뻐한 말씀인데 예루살렘과 유대나라가 100년 전에 망한 북쪽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게 BC 722년도부터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을 보면서 그들이 각성 분발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100년이 나 참고 기다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마리아를 수도로 했고 남쪽은 유대국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했습니다. 이 형제나라가 때로는 싸우는 일도 있으나 북쪽이나 남쪽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때를 맞거나 환란이나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담은 다른 한 나라가 각성 분발하는 재료거리로 제시하는 일들도 있어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나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 아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의 남아 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침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보에서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좃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습1:2-6)” 이 말씀은 이 세상 끝 날에 불신대상은 완전히 전멸시킬 것에 대한 경고적 예언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스바냐 3장에 나오니다.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3:1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에서 포악한 그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이란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평안을 보장받았던 예루살렘이 폭군들에 의해서 패역하고 성읍이 온갖 죄악으로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남의 이야기처럼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교훈

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 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요” 방백들은 교회로 말하면 장로를 말함이고 부르짖는 사자는 위협을 주어 강탈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4절에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목회자들이 영적성공을 위한 목회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 인간적으로 자기이익을 챙기자는 식으로 목회자가 타락한 인간들의 편을 이해해주는 입장으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휩쓸려서 죄악의 길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는 칼날 같은 말씀으로 찢리고, 녹아지고, 깨짐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영혼이 구원 얻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12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모습으로 교만하고 도도하게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땐 그 교회의 목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 진리의 목자라고 하면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칼날같이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고 회개시킴으로 그 영혼이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거듭나는 구원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회개와 회복의 기쁨

사람들은 썩어질 육신이 죽을 병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영혼이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옥 길을 벗어나게 된 것인데 하늘소망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이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음에도 그 기쁨을 진짜로 기뻐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스바냐 3:8-13에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 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닫게 하여 그들로 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흠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 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찌라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 때에 내가 너의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내가 근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중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찌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께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차라리 예루살렘은 포기하고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로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복을 얻게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면 그 믿음이 모범이 되고 은혜와 덕을 끼치는 일에 앞장서고 목회하는데 더 힘 있는 뒷받침으로 참여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예물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절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너무나 교만해지고 비뚤어지고 강탈하고, 사기, 협박, 불의를 행하여 아무리 돌이키기를 일러줘도 교만하여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더 이상 기대 걸 것이 없을 때 예루살렘은 내어버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택하여 회개하게 함으로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발전을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기대해 보시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순수한 믿음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충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자들 중 황소처럼 고집이 세져서 목자가 끌고 가도 잘 따라오지도 않고 제멋대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도리어 열심을 내는 신자들을 보면서 나도 예전엔 그렇게 열심을 내어 했던 때가 있었다고 도리어 비웃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세월이 흘러 더욱 좋아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퇴보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남기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기신 자

는 개별적으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전부 멸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12절 말씀처럼 근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중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찌라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멸하시고 그중에서도 짓밟히고 억울함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믿음을 지킨 이들은 다음세대를 위한 주인공들로 세워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질 것을 시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복을 보장받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하십니다. 그것은 맥이 빠져 의욕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방을 살펴보아도 불의와 죄악이 가득하고 원수 마귀가 판치면서 마음을 의지하고 기뻐할 곳이 없어 맥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하십니다.

17절 말씀은 주위 사람들이 모두 불의와 강포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발악하고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행패하며 온갖 모양으로 괴롭혔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셔서 마귀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이제는 그들의 시대로 회복해 주실 때 회복되어지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회복 받는 그들보다 더 기뻐할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탓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 믿음은 자신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신앙생활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다하더라도 마귀가 보기에 그 아내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 전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온갖 행패임을 깨달아 그 모든 상황을 불평과 핑계거리로 삼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 2014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복지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S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화)**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단국신학)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계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imjeongul@gmail.com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음임.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Good News**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We are fully accredited by ATS and a member of GTU.  
absw.edu (Established 1871)

**Doctor of Ministry Program**  
목회 학 박사 과정 학생 모집  
Los Angeles D. Min Cohort Program  
We will have two seminars (3 Units each, Monday - Friday):  
June 16th through 20th, 2014: Church Growth  
Professor: Dr. Hyo shick Pai (9:00 am - 5:00 pm)

June 23rd through June 27th, 2014: Leadership in Urban Ministry  
Professor: Dr. Youngil Kim (9:00 - 5:00 pm)

Location: The First Baptist Church (Los Angeles Extension Campus)  
760 S. Westmoreland Ave. L. A. CA 90006  
<좋은 학교, 좋은 교수, 그리고 좋은 학생>

Contact Persons  
Dr. Hyo Shick Pai, Administrator  
(661) 755-5442 drhvopai@gmail.com

Visiting Professors for Church Growth Seminar  
Dr. Chunil Cho  
Dr. Dong Sup Bang

Dr. Paul Martin: President  
Main Campus: 2606 Dwight Way, Berkeley, CA 94704

Approved by Dr. LeAnn Flesher, Dean and Dr. Sam Park, Director

**담임 목사 청빙 공고**

휴스턴 사랑의 교회는 설립 18년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실 본 교회 제 3대 담임 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I. 청빙요건**

1.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M.Div.) 목회자중 미국 장로교회 교단 (PCUSA)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2.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고 이민 목회와 2세 교육에 사명감과 비전을 가지신 분
3.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II. 제출 서류**

1. 이력서 (최근 가족사진 포함)
2. 신앙고백서, 목회 소견서
3. 목사안수 증명서
4.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5. 추천서(2통) 및 최근 설교DVD (2개) 가능하시면 구약 1편과 신약 1편

**III. 제출 마감일: 2014년 5월 10일**

**IV. 제출처:** 청빙위원장 (최맹모 장로)  
우 편: Pastoral Nomination Committee  
Love Presbyterian Church of Houston,  
8101 Senate Ave., Houston TX 77040  
이메일: pncpch@gmail.com

**V.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에 한하여 추가 서류 목록과 제출 기한을 별도로 통지할 수 있음.
3.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휴스턴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www.houstonlovechurch.org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네바다 주 리노에 위치하고 있는 본 리노영락 교회는 다음과 같이 담임목회자를 청빙 합니다.

**I. 지원 자격**

- 1) 정규 신학 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회자로서 해외 한인 장로회(KPCA)소속 혹은 가입이 가능한 3년 이상 목회 경험과 2세 교육에 사명감과 VISION을 가진 분.
-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II. 제출서류**

- 1) 이력서(최근 본인 및 가족사진 포함)
- 2) 본인 소개와 신앙고백서 및 목회 소견서
- 3) 목사 안수 증명서
- 4)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일반 대학 졸업 증명서(optional)
- 5) 추천서 : 목사 2명 및 장로 2명
- 6) 최근 설교 CD 혹은 DVD 2개

**III. 제출 마감일 : 2014년 5월 23일**

**IV. 제출처**  
서류제출처 : Eld. Seung B. Park(청빙위원장) 120  
Continental Drive Reno, NV 89509  
교회주소(참고) : RENO YOUNG NAK CHURCH  
3102 Skye Terrace Sparks, NV 89431  
Email: sbparknv@yahoo.com

**V. 기타**

- 1)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 서류심사를 통과한 분들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3) 서류 마감일자 후 10일 안에 서류심사를 통과 한분들에게 E-Mail로 연락 드림.
- 4) 전화 문의는 사절함.
- 5) 서류제출은 Certified Mail로 보내주시고 E-Mail로 확인 해주시길바람.

리노 영락 교회 목회자 청빙 위원회

### 세월호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소위 “멘붕”이란 이런 것이군요. 고국은 슬픔과 허탈감으로 정신적 붕괴 상태에 있습니다. 이민사회도 충격이 큰 것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정치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위로를 전하고 있어도, 그 슬픔은 쉽게 잊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476명의 탑승인원 중에서 174명의 구조된 인원에는 더 이상 변화가 없고, 나머지 승객의 반 이상이 이제 실종자에서 속속 사망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고 기적을 기대하건만 온 국민의 소망과 기원은 응답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은 우리의 많은 자녀를 어른들의 잘못으로 잃어버렸다 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단원과 교감선생님은 삶을 불명예로 알고 자결을 택했습니다. 수백명의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먼저 배를 탈출한 선원들 전부는 생명을 유기한 죄로 형사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몇 사람 처벌함으로 결코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세월호 사건 이전과 사건 이후의 역사로 분명하게 차별화시켜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경제적 부흥이 국격(國格)을 높이는 것이 아님을 절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지도자의 무책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알려준 사건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영이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재물에 대한 탐욕과 욕망이 무죄한 후대를 얼마나 희생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비상시에 필요한 매뉴얼이 반복되는 관행과 특혜로 인하여 얼마나 무력하게 버려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민 사회의 동포들도 가슴이 미어지니, 고국의 상황은 집단 우울증을 겪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과 고뇌가 깊을수록 우리는 방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개인적인 처벌의 차원에 머물지 않도록 하여

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은 개인의 처벌이나 화풀이, 감정적인 카타르시스의 대상을 찾는 심리적 투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스런 공동체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관행과 제도라는 집단적인 악(collective evil), 구조적인 죄(structural sin)로 정착되어서 오랜 동안 우리 안에 머물게 된 사회적인 죄악(social sin)의 열매인 것입니다.

탐심은 이상승배(골 3:5, 엡 5:5)입니다. 돈이라면 안전문제도 뒷전에 던져버린 오랜 관행의 뒤에는 흑암의 권세의 유혹이 있습니다. 악령의 유혹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입니다. 죄는 종종 개인뿐 아니라 집단적, 제도적, 사회적인 행태를 가집니다. 가장 뒤에 숨어있는 사탄은 우리와 조국을 세뇌시킨 돈에 대한 탐욕과 이상승배로 우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승객을 버리고 도망하는 세월호 선장은 바로 내 마음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일 뿐, 세월호를 둘러싼 악의 메카니즘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는 어디에도 떠다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이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 내 안에 있는 무책임한 선장을 찾아내어 내어보내야 합니다.

### 예수를 선전합시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분이 라디오에 출연하여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몇 번이고 장사속으로 그 제품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이 건강이상으로 수년을 고생하였고, 유명하다는 치료는 다 받아 보았지만 별 효험이 없었는데 우연히 그 제품을 복용한 후 완치를 본 후로는 그 제품에 대한 전도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이 제품을 알리고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꼭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원한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자신이 확신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전파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확신하면 나누지 않고는 못 배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에게게는 폐쇄성향과 공개성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 열등적 성향, 부정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기려 하는 폐쇄성을 소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 우월적 성향, 긍정적 성향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내려는 공개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서는 그것을 감추고 나타내려 하지 않지만, 일단 회복을 맞보고 긍정적 존재가 되었을 때는 자신이 회복된 존재이며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하는 공개성향으로 돌아서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좋은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것 때문에 인생역전을 경험하면 그것을 나누려는 심리적 습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고는 건널 수가 없어서 확신과 함께 나누는 인생, 선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심리적 현상이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풍성함을 소유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은총의 사건을 도대체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이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신 예수를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일과 나의 신앙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내면적인 것은 행동이나, 태도로 반드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격, 기쁨, 사명, 은혜...등등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반드시 외적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누리려면 표출하고 싶어합니다. 보이고 싶어합니다. 나누고 싶어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신앙생활 때문에 나누고 싶어하거나, 선전하고 싶은 공개성향이 없다면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확신부재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다른 내용을 쓰고 싶어도 계속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또 다시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세월호가 침몰 위기에 처하자 승객들에 대한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선원 전용 통로를 통해 자신들만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선박승무원들은 선장을 포함해 15명 모두가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15명 모두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국제해사포럼 참석을 위해 23일 한국을 찾은 마쿠 밀리(Markku Mylly) 유럽해사안전장정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 말하면서 “이번 사고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보여준 행동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하며 “평소 꾸준한 연습과 훈련 없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5년 간 세계 곳곳에서 대형 상선과 화물선-여객선을 운항했고, 그중 25년은 선장으로 일하다 은퇴한 뒤 미국 선장-선원단체(MM&P)에서 선원 훈련 교관으로 일하는 짐 스테이플스는 전화 인터뷰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선실에 머물러 안 된다는 건 뱃사람이라면 아는 기초 상식인데, 이 또한 반복 훈련으로 몸에 배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 선 무용지물이라는 교훈을 이번 세월호 사고가 보여준다. 배에서 탈출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배가 그 정도

균형을 잃었는데도 탈출 명령을 못 내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면 “훈련, 훈련, 그리고 훈련이다. 훈련은 생명 유지와 직접 관련된다. 망망대해에 나갈 때 의지할 곳은 훈련밖에 없다. 훈련의 궁극적 목표는 사고가 났을 때 자동반응(reactinary)하도록 몸에 입력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배 안에는 수학여행 가는 교사와 학생들도 타고, 신혼부부도 타고, 많은 물건을 나르며 열심히 사업을 하는 사람도 탑승했다. 러시아인 중국인도 탑승했다. 아무나 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배의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와야 할(First in, Last out) 배의 리더들이 선장과 선원이라면 위기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하고 또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살겠다고 수백 명의 학생들과 사람들을 버렸습니다.

교회는 배와 같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리더는 일반 배의 리더보다 더욱 중요한 사람입니다. 리더로서 해야 할 말과 행동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리더는 철저한 훈련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배훈련, 기도훈련, 순종훈련, 전도훈련, 봉사훈련, 헌금훈련, 섬김과 사랑실천 훈련 등 기본적인 일들을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만약 평소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훈련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면 위기의 때에 올바른 자동반응은 없을 것이고 결국 환경을 따라 영의 일을 육의 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직분자들과 리더들이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들도 한 영혼을 위해 교회내 주차장을 양보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샬롬!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sup>®</sup> 세트

- 좋은 흡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 SELLA CARE<sup>®</sup>

### 셀라케어 효능사례

###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213-500-4471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올려야하는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되고 시력, 피부, 머리크리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컸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아노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아노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전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전전의 다리,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213-258-5321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잤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악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재(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 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혜장암 말기	60세 중년에 가장 힘들다는 혜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혜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허파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셋트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파(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푹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정도 듣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찬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었다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 건강과 성경이야기 3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칼럼 세번째 시간입니다. 첫번째 시간에는 우리 몸은 흙 성분으로 되어있으니 흙 성분인 미네랄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고 두번째 시간에서는 피는 생명인데 주로 일산화질소에 의하여 영양과 흐름이 유난하게 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소량의 미네랄이 어떻게 피 흐름을 돕고 아픈곳을 금방 낫게 하느냐고 질문 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 있는데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낫고자 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 계하시를 시켜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번 씻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강조위에 손을 흔들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약간 살펴보면 그래도 내가 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파워 나 보내다니 하면서 격식과 위상을 세우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장군의 종들이 권고하는 말을 듣고 결국에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번을 씻고 문둥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큰 격식과 많은 의료 행위가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라고 합니다. 흙을 달라는 것을 보아서 는 몸을 낫게 한 요단강은 미네랄이 가득한 흙탕물이었던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곱번 들랑날락 하면서 흙탕물이 되었던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은 뼈하면 첫째로 골다공증이 생각 납니다. 일 본속담에 후로테다우레타 라시누라고 모태에서 넘어지면 죽는 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넘어져서 어느곳이든지 골절되었을 경우 노인의 90%가 이로 인하여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뼈가 부러지는것이 아니라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서 회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 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걸까요? 뼈의 구성분을 보면 칼슘과 다량의 미네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세포에서 영양분이 필요할 때 공급받지 못하면 부족할 때 마다 뼈에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때 뼈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는데 그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다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눈동자에 실핏줄이 잘 터지시는 분은 눈 주변에 눈 주변 뼈에 골다공증 증세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소식은 뼈는 8년마다 재생되는데 재생 될 때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된다면 뼈도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던 곳은 정말로 미네랄이 가득한 것과 같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미네랄을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서인종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욕	201.953.0022	LA 사랑방	213.351.9552	뉴서울 호텔(팔달)	714.537.6619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버지니아	703.684.9199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시온약국	213.382.6485	시애틀	206.331.6655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 다운타운	213.798.3333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밸리	818.642.8223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놀웁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우리약국	213.384.6323	얼바인	949.330.9009	<b>하와이 총판</b>	808.359.3376	H 마트 내 H 헬스(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에스약국	323.733.778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H 마트 내 H 헬스(아바인)	949.251.0193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에나하임	714.469.5809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마켓 내 그린랜드 건강헬스	626.839.2868
부에나팍 종로의료기구	714.530.8275	로렌하이츠	626.912.5727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가디나	714.351.0440	LA시온마켓마손약국	213.739.303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캐나다	714.636.2588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 프랭클린 그래함, 방송 중 동성애 회개 촉구

## “죄를 고백해야 구원 받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빌리그래함전도협회 회장)가 최근 방송 중에 동성애자들에게 회개를 당부했다.

그래함 목사는 최근 방송된 ABC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에 다른 복음주의 지도자인 남침례교 윌리와 종교자유위원장인 러셀 무어(Russell Moore) 목사, 신앙과자유연합 랠프 리드(Ralph Reed) 목사 등과 출연해 다양한 기독교 관련 주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동성결혼과 동성부부의 자녀 입양에 관한 반대 입장을 밝히던 중

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동성애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동성애자인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말이다. 거기에 대한 내 답은 당연히 갈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래함 목사는 “하지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속 간통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회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가리키며 “프랭클린 그

래함 역시 죄인이다. 나는 동성애자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죄인이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나는 용서 받았고 내 죄로부터 돌이켰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들을 용서하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그래함 목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 동성부부 입양 반대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의 동성부부가 러시아 고아들을 입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에 최근 서명했다.

손현정 기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

## 당신 가족이 홈리스가 된다면, 알아볼 수 있을까?



뉴욕시 구제전도단은 뉴욕 홈리스들이 처한 곤궁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홈리스를 볼 수 있는가?(Have the Homeless Become Invisible?)”는 제목의 동영상 공개했다. ©YOUTUBE SCREEN GRAB

뉴욕시 구제전도단 뉴욕시 구제전도단(New York Cit Rescue Mission)은 22일 뉴욕시 곤궁에 처한 홈리스들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영상을 공개했다.

미국 최초의 구제전도단인 뉴욕시 구제전도단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이 홈리스가 되어 거리에서 생활을 한다면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밀리에 정교한 작전을 수행

했다. 그들은 뉴욕시 구제전도단의 프로젝트를 위해 사람들이 그들의 배우자, 부모, 형제, 사촌 혹은 다른 친척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홈리스를 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이 붙은 이 영상은 참가자들이 다시 그들의 홈리스로 분장한 가족을 찾아가 끌어안는 장면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되나 뉴욕시의 홈리스들의 처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뉴욕시 구제전도단  
홈리스에 대한  
관심 모으기 위해  
“그들을 보이게 만들자”  
캠페인 벌여

또한 홈리스를 위한 미국 내 가장 오래된 뉴욕시 비영리단체인 노숙인연합(Coalition for the Homeless)에서는 2014년 3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최근 몇년간 뉴욕시 내 홈리스는 1930년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3년 6월 뉴욕시 관할 쉼터에는 장기 노숙인 53,615명이 머물며 여기에는 22,712명의 자녀를 둔 12,724명

의 가구가 포함된다. 이 가족단위의 노숙인은 노숙인 쉼터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연구에 따르면 홈리스가 되는 주요 원인, 특히 가족들의 경우, 저렴한 가격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 통계청 역시 뉴욕시 내 저렴한 임대 아파트 수가 점차 감소하는 동시에 뉴욕의 저소득층의 임금은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 격차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노숙인 가정에 비해 노숙인 개인은 심각한 정신질환, 중독, 다른 중증 건강 문제를 지니고 있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쉼터조차 없는 수천명의 노숙인들은 매일 밤 뉴욕시 길거리, 지하철, 다른 공공장소에서 잠을 잔다. 이들의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으며 최근 뉴욕시 조사에는 이 수를 과도하게 낮게 잡았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티노는 노숙을 경험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뉴욕시 노숙인 쉼터 거주인의 약 53%가 아프리카계이며 32%는 라틴계,

6%는 백인, 1%는 아시아계, 1%가 북미 원주민 또는 다른 인종 및 민족이며 나머지 9%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영상은 뉴욕시 구제전도단의 “그들을 보이게 만들기(Make Them Visible)” 캠페인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제작됐다. 이 단체는 단체 운영을 위해 세금 공제 기부금을 요청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홈리스를 지나쳐 가기 전 사람들을 두 번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이 캠페인을 공유해 주길 부탁했다. 뉴욕주에 위치한 싱싱 교도소(Sing Sing prison)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제리 맥컬리(Jerry McAuley)가 1872년 설립된 뉴욕시 구제전도단은 “뉴욕시 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희망, 음식, 의복과 쉼터를 제공”을 사명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비영리 단체는 하룻밤 숙박 손님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 거주, 영적인 안내,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지원과 깨끗한 의복”을 제공한다. 장기 거주인들은 직업 훈련, 재정 훈련, 검정고시 준비 등을 제공받는다.

주디 한 기자

## 아베디니 목사, “자신을 버리고 주와 함께 부활하자”

이란에서 기독교 전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테헤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에드 아베디니(Saeed Abedini) 목사가 최근 부활절을 맞아 자신을 지지해 주고 있는 전 세계 교우들을 향해 서신을 전했다.

8년형을 선고 받고 1년 넘게 복역 중인 아베디니 목사는 감옥에서 자행되는 폭력 행위로 인해서 최근까지도 건강이 당장 입원 치료를 요구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서신에서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담대한 믿음을 권면했다.



사에드 아베디니 목사.

아베디니 목사는 “우리는 때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 없이도 그의 영광과 부활에 참여하고는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음의 길을 지나

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기심과 욕심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

께 다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좋은 배우자와 좋은 직장을 원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이러한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그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감옥에서 자신이 기도하며 깨달은 세계를 간증하기도 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 죽은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보여 주셨다. 이 세계의 교인들 가운데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영적 은사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허물어야 하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뜻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다”고 밝혔다. 아베디니 목사는 교우들에게 “죽은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살아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미국인인 아베디니 목사는 지난 2012년 7월 이란에서 고아사역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체포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내 나그

메 아베디니와 자녀들은 미국에 있으며, 나그메는 미국법과정의센터(ACLI)와 함께 남편의 석방을 위해 국제적인 청원 운동을 펼쳐 왔다.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224만 명이 넘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서명했다.

아베디니 목사에 대한 이란 당국의 가혹 행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ACLI는 아베디니 목사가 병원에서 결박 당한 채로 구타를 당한 상황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당시 아베디니 목사는 심각한 만성 복통으로 인해서 긴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으나 진통제 처방 이외에는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구타만 당하고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졌다고 ACLI는 고발했다.

손현정 기자

# 2014 가을 한국 성지순례 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에서는 한국 성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효사랑 선교회와 함께 오랫동안 한국 성지순례를 인도 해 오시던 김영혁장로(신앙의 뿌리 찾기 전문위원)와 함께 떠나는 한국 성지(순교지)순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미국 한인 성도님들에게는 더 없이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영적 뿌리를 찾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픈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고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 대표 폴 최목사 드림.

### ※ 2014년 가을 한국 성지순례 일정 ※

- 일 시: 1차> 2014년 9월 1일~9월 6일(5박6일) 선착순 35명  
2차> 2014년 10월 6일~10월11일(5박6일) 선착순 35명
- 내 용: 한국 선교지(순교지) 순례, 역사적 기념장소 순례
- 가 격: \$699+항공료(35명기준, 6월말 마감예정)  
(현지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폴 최 목사 714-351-0124 ▪ E-mail: choigh1115@Gmail.com

### ※ 일정내용 ※

판문점 - 제 3 땅굴 - 한국 순교자 기념관 - 소래 교회 - 제암 교회 - 유관순 생가 (매봉교회) - 해미 생매장 순교지 - 금산 교회 - 정읍 두암 교회 - 한국 선교역사 박물관 - 여수 애양원 - 웅촌 교회 -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 - 양화진 (외국인 공원 묘지) - 영광 염산교회 - 영광 야월 교회등을 돌고 해산하여 추석을 지내고 돌아오는 일정.

한국성지순례 설명회

일 시: 2014년 5월 3일 오전 10시  
장 소: 은혜와진리교회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 ※ 특 전

한 교회가 계획하시면, 그 교회에 맞게 준비 해 드립니다. 시니어 분들은 시니어 항공가격을 적용하여 드립니다. 항공료는 28년 역사의 파이오니아 여행사가 최저가로 보장합니다!

### ※ 후 원

O.C목사회, 중부교회협의회, 은혜와진리교회, 파이오니아여행사, 한국기독교 성지순례선교회부산지회등.,



# 양화진 선교사 묘지

## (선교의 꽃을 피운 선교사들이 잠든 곳)

지금의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5-8번지 절두산 일대를 창하고 있는 이곳은 외국인 묘지공원으로 순교적 신앙이 살아 있고, 한국과 한국인을 위하여 이땅에 복음을 전해준 최초의 선교사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를 전해주는 한국 근대화에 공헌하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들과 그들의 자녀, 그리고 한국에 와서 죽은 외국인이 묻혀있는 곳이다.

이곳 양화진 외국인 묘지의 공식 명칭은 '서울외국인 묘지공원'인데, 이곳 묘역 면적은 13,224㎡(약4,000평)이다. 1890년 10월 24일 개설허가를 받은 이곳은 2012년 12월 현재 415기의 무덤이 있다. 이중 선교사나 그 가족은 145기(가족포함)이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복음의 증인들이 의료시설 부족으로 애처롭게 풍토병과 사고로 희생한 선교사들과 아이들이 함께 묻혀 있는곳, 묘의 3분의 1 이상이 어린 아이들의 묘 이다. 이들 중에는 태어나 하루나 이틀을 못살고 이 곳에 묻힌 아이들도 있다. 이곳 양화진이 외국인 묘역이 된 경위는 의료선교사 헤론(John W. Heron)의 죽음이 동기가 된다. 1885년 6월 21일 내한한 의료선교사 헤론(Dr. John W. Heron)은 제중원에서 일하던 중 1890년 7월 이질에 걸렸고 7월 26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서울에서 운명했다. 그의 임종을 앞두고 동료 선교사들은 매장지 문제로 고심하게 되었고 당시 미국공사 허드(Augustine Heard)를 찾아가 이 문제를 의논하였다. 조선에 부임한지 겨우 2달 남짓한 총영사 허드 공사는 서울에 외국인 매장지 문제가 정리되지 않음을 알고 놀랐다. 개항지인 인천에는 1883년에 이미 외국인 매장지가 설정되어 있었다. 허드 공사가 부임하기 전에 서울에서 2건의 외국인의 장례가 있었는데 이때는 인천까지 운구하여 매장하였다. 그러나 7월은 가장 무더운 날씨인데다 당시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인천항 해안 언덕까지 운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미국공사 허드는 조선국 교섭통상사무 독판 민종묵에게 '외국인 장지 확정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알렌을 통역으로 대동하여 직접 통상사무아문을 방문하였다. 헤론의 죽음이 임박하여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속한 처리를 요망하고 기대했으나 헤론이 임종했던 7월 26일까지 장지가 결정되지 못했다. 장례식은 27일주일 오후 5시 30분에 동료 선교사들의 주재 하에 거행되었다. 주한 선교사들은 서울 가까이 묘지로 쓸만한 장소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조정에서 지정해 준 곳은 한강 건너편 야산 기슭 모래밭 이어서 묘지로는 적절치 못했다. 그래서 그날 오후 헤론은 미국공사 사택 정원에 임시로 묻혔다. 1893년 10월에는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 러시아 등 5개국 공사가 공동명의로 조선 정부에 양화진을 '외인묘지'로 공식 승인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 요청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미국공사 사택정원에 묻혀있던 헤론 선교사를 양화진으로 이장하여 묻힌 첫 서양인이 되었고 그의 죽음이 외국인 묘지 확정의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1904~5년에는 양화진 외국인묘지의 확장을 요청하였고 1905년에 인준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구미 각국 영사관과 외국인들의 대표가 묘지기를 두고 관리해 왔다. 그런데 1913년 7월 1일자로 조선총독부가 마련한 토지대장에는 이곳 양화진은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1942년 5월 22일 조선총독부는 조선 내의 모든 외국인의 재산을 '적산'으로 압류하였으므로 양화진의 외국인묘지도 동일한 운명을 거쳤을 것이다. 그러다가 미 군정하인 1946년 10월 1일자로 다시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로 등기되었다. 그러다가 1985년 6월 17일자로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사업회(이사장 한경직)로 그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때부터 실제적인 묘지 조성사업이 이루어졌고, 이곳에 한국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동시에 '경성구미인묘지'는 '서울외국인 묘지공원'으로 개칭되었다. 이곳은 무관심 속에 잊혀진 역사의 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가 그 100년의 역사를 보내면서 돌아보기 시작했고, 양화진은 역사를 간직한 기억의 땅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1986년 출간된 전택부 장로의 '이 땅에 묻히리라'(홍성사)나 정연희 권사의 소설 '양화진'(홍성사, 1986, 1992)이 숨겨진 역사의 땅을 기억의 땅으로 소생시키는 데 다소 영향을 주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는 107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이중 38개의 십자가는 각 나라와 시대, 교파별 배경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다. 또 타블렛(Tablet) 형태의 비석 속에 새겨진 69개의 십자가는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종족과 방언과 민족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하



김영혁 장로  
효사랑선교회

나라는 우주적인 통일성을 표현해 주고 있다. 양화진 외국인 묘역을 돌아보면 유난히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이 있다. 헬버트가 묻힌 곳도 그 하나이다. 우선 헬버트의 묘비명은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한다. "호머 헬버트(Homer B. Helbert), 1863년 1월~1949년 8월. 비전의 사람이자 한국의 친구.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 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I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in Westminster Abbey)." 그리고 아래의 글귀가 한글로 새겨져 있다. "일천팔백육십삼년 일월 이십육일 미국에서 탄생, 일천구백사십구년 팔월 오일 서울에서 별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단기 사천이백팔십이년 팔월 삼십일 일, 헬버트 박사 장의위원회세움." 헬버트가 어떤 분이었기에 "한국의 친구"라고 했을까? 그는 유니온신학교 재학 당시 조정의 초청을 받고 1886년 6월 내한했다. 처음에는 관립 소학교 교사로 있었으나 육영공원이 설립되자 그해 8월부터 외국어 교사가 되었다. 1894년 육영공원이 폐교하게 되자 그는 북장로교 선교부 소속 선교사로 일하게 된다. 그는 1903년 우리나라 YMCA 창설의 주역으로서 초대회장이 되기도 했고,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를 발간하기도 했으며 배일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로 국운이 기울 때 고종황제는 헬버트(Homer Bezael Hulbert)를 밀사로 미국에 보내 고종황제의 친서를 전달하고 미국의 도움을 청하고자 했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 비밀조약 가츠라베르프조약을 맺어 일본의 조선 침략을 묵인해 주려했으므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고종의 친서를 전달하지는 못했으나 헬버트는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의 운명을 슬퍼했다. 그는 '전환기의 한국(The Passing of Korea)'을 써서 한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실로 그는 격변기 한국에서 한국인의 처지를 함께 괴로워했던 한국의 친구였다. 그러했기에 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소망했던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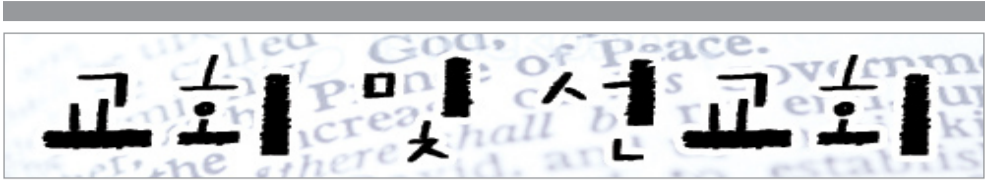
물론 외국인 묘역은 양화진에만 있는것은 아니다. 이땅에 온 선교사들이 양화진 아닌 다른 곳에도 묻혀 있다. 캐나다 출신 초대 선교사 메켄지(W.J. Meckenzie)는 황해도 소래에 묻혀있고 남장로 출신 선교사들은 광주 양림동에 묻혀 있다. 스코필드박사(Dr. F.W. Schofield)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있고, 호주 선교사들은 부산과 마산, 진주에 묻혀이기도 하다.

존 W. 헤론 선교사는 1858년 6월 15일 영국 더비셔(Derbyshire)에서 출생하여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Knoxville)로 이주하였으며, 동테네시주 메리빌대학교와 뉴욕중앙대의 과대학에서 개교 이래 최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교수로 내정된 분이였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명 때문에 1884년 4월 24일 미국에서 조선으로 파송하는 최초 선교사(장로교)로 정식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헤티 김슨(Hattie E. Gibson)과 결혼하였다. 헤론 부부는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이 불안하여 일본에서 1884년 4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머물다가 1885년 6월 21일 조선 제물포로 입국하였다.

그는 의료 선교사로 입국하여 알렌(H. N. Allen)의 후임으로 광혜원(제중원) 원장파, 고종황제의 시의로서 가선대부 벼슬을 하여 해참관이라 불렀다. 헤론은 1885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면서 매일 60~70명의 환자를 보았는데, 환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다. 병원이 개원된 후 1년 동안 제중원에서 모두 10,460명의 환자가 치료 받았다. 전국에서 각계각층의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그의 업적은 우리나라에서 병원사업과 성서 번역사업을 비롯한 기독교 문서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성서 출판을 위하여 1887년에 조직된 성서번역 상임위원 5인 중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으며, 1890년 6월 25일 창설한 기독교서회 창설자였다. 헤론에 대하여 기포드 선교사는 "헤론의 성격은 오래 사관 뒤에서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그는 의지적인 사람이며 자기 책임은 철저히 지켰다. 그는 의사로서 강한 희생 정신과 사랑의 정신 그리고 인술로서 모든 어려운 의료사업을 담당해 냈다. 절대로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몸을 아끼는 법이 없었다. 그는 과로와 정신적 긴장 때문에 기진 맥진하여 질병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하였다.

환자 진료에 있어서 그는 뛰어난 기술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특히 백내장 수술은 환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소: 3119W.6th, LA, CA 90020 lcpdoox.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모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월-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후 1:45  
E.모예배 주일오전 11:00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E.모예배 주일 오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

**성재복음선교교회**  
은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박승부** 장로 17,27,37,47 수료생 배움, 현재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기구없이 인간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E모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렛 진반)  
음식 보조 푸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교회**  
gkalk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김해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김중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향선교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mail. isaacdw@hotmail.com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임마누엘선교교회**  
초대교회와기정오성,성경적코이노니아,민인사제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전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콜라세(Callng), 고리교(Healing), 기르매(Maturing),뫼산선(Cont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국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학교오전11:00 Youth  
오전 6:00(토)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2333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애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월요일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 인간이될수없고, 인간이될수없게하며,선교와영혼을충족하는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930-0011,(323)935-0011 / www.LASarang.com



# 교회의 빛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혜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사우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 ganachurch.hompag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극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팔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교회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강영석**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 515-1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물통(통)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부  
5부예배 오후 3:00(EM) 청년부

장애유아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할로-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부  
오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점심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할-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전 5:30(화-토)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세리토스채플)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세리토스채플)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벨리채플)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다우니 채플)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벨리채플)

**최희정**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쉽)  
오후 12:00(번영)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 뉴욕교협, 세월호 실종자와 유가족 위한 기도회



세월호 실종자와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뉴욕교협 목회자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가 전 미주 한 인사사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지역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가 23일 오후 1시 뉴욕에일장로교회(담임 김중훈 목사)에서 '세월호 실종자와 유가족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애도 물결에 동참했다.

이날 기도회는 하윤준 목사(감사의 사회로 장애용 목사(재해분과위원장) 기도, 이주의 장로(증경이사장) 성경봉독, 방지각 목사(증경회장) 설교, 한재홍 목사(증경회장) 합심기도, 김승희 목사(회장) 성명서 낭독, 장경혜 목사(총무), 최웅렬 목사(증경회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 또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를 위해 간절히 합심기도했으며 구조자들의 안전과 정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사태 수습과 확실한 예방책 마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다.

뉴욕교협은 성명서에서 "고국에서 들려온 세월호 침몰사고의 소식으로 뉴욕교인 50만 명이 슬픔에 잠겼다"면서 "희생당한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

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또 뉴욕교협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의 존엄성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어처구니 없는 대응들이 연속됐다"이라며 "타인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직업인들에 대한 소명의식 고취와 비상상황시 수난구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교협은 "뉴욕의 모든 목회자들은 오늘도 오열하며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기원하는 가족들과 같은 마음으로 실종자들의 귀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도회에서 설교한 방지각 목사는 '파산의 원인'(행27:9-1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의 표면적인 원인이 생명을 귀히 돌보지 않은 승무원들에게 있고 제도적인 문제점에 있지만 우리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을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해 공감을 얻었다.

김대원 기자

##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 4개 선교지에 신학교육 제공

### 가을부터 GCU 실용음악과 개설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 신학 대학원 협의회 정회원 후보 인증 감사 예배.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이하 GCU, 총장 김창환)의 북미신학교협의회의(ATSS) 정회원 후보 인증 감사 예배 및 실용음악과정 개설기념 찬양 콘서트가 지난 26일 오후 6시 열렸다.

지난 2012년 6월, ATSS로부터 준회원 교육기관으로 인증 받은 GCU는 2013년 11월 서류 심사 통과와 캠퍼스 실사를 받고 올해 2월 정회원 후보가 됐다. 공식 서한을 받았다.

이날 예배에서 인사말을 전한 김창환 총장은 "20회 졸업식을 앞두고 있다. 쉽게 온 길이 아니었다. 때론 손가락질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불러 주셨기에 성장이 가능했다. 이 학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간 애써 준 교직원 및 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창환 총장은 "선교 현장에서 신학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GCU는 케냐와 필리핀에 각각 25만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신학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현지 선교사의 요청을 받은 니카라과에는 3개월마다 2주씩 교육을 제공할 것이며 올 6월에는 우크라이나 북유럽의 신학교와 MOU를 맺을 예정이다. 학교가 앞으로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달라"고 밝혔다.

'무지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정호 목사(아틀란타한인교회)는 "노아는 해가 쨍쨍한데 엄청난 규모의 배를 짓는다. 많은 사람들은 이 늙은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구름 한 점 없는 날에도 방주 짓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배출해 낼 학교가 필요하다. 잘못된 가치관과 모순이 빛어낸 비극(세월호 사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목사는 또 "하나님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 하나님의 축복이 때로는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약속을 믿고 가야만 한다. 아픔과 연약함을 아는 이들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신다. 포기할 수 없는 꿈을 붙잡고 달려왔다.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 있다. 구름 가운데 숨겨진 무지개를 찾아 힘차게 전진하라"고 당부했다.

축사를 전한 김선배 이사장(미국장로교총회 한인회총담당총무)은 "20여년 전 한인계 신학교 중 미국장로교 신학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신학교가 세워질 수 있을 꿈꿨다.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 했다. 비록 이 학교가 미국장로교에 속한 학교는 아니지만 ATSS 정회원 후보가 된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 GCU를 한인이민교회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로 우뚝 세워주시길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진 찬양 콘서트에서는 노준엽, Randy Kim, 장제화, 김일곤, 김충만, 황현주, 장재원, Jenny Jeon, 장호진, 유지원, 안태환, Grace Park 씨 외에 다수의 연주자와 합창단이 출연하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David Danced', 'I Surrender All',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 주를 멀리 떠났다' 외 다수의 곡들을 선보였다.

올 가을부터 개설되는 GCU 실용음악과는 기독교세계관, 예배와 음악, 선교와 음악, 찬양과 경배 실전 실용학, 찬양 인도법, 현대예배기획, 찬양팀 운영론, 실용음악제작, 예배사역자 연구, 대중문화 연구, 공연예술, 음악사역실습, 밴드 앙상블, 대중음악사, 재즈화성법, 실용음악 편곡법, 음악비평론, 컴퓨터음악, 음향이론, 라이브 & 레코딩 기술 등 과목들이 준비된다.

앤더슨 김 기자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영어부흥회

## “이 시대 훌륭한 사람이란 누구일까?”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영어부흥회를 인도하는 서북침례교회협의회 대표 랜디 아담스 박사.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열린 타코마제일 침례교회 영어 부흥회에서 서북침례교회협의회(The Northwest Baptist Convention) 대표 랜디 아담스 박사는 “하나님의 정지기로 서 이 땅에 남겨야 할 유산”에 대해 강조했다.

랜디 아담스 박사는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정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이타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 강조했다.

아담스 박사는 “성경적 시각으로 볼 때, 위대한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후손을 위해 업적을 쌓은 사람”이라며 “우리 선조들의 유산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듯이, 우리의 말과 행함을 통해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이기에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담스 박사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안락을 누리기 보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랜디 아담스 박사는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가 보낸 헌금을 통해 20개 교회가 개척되었고, 서북침례교회협의회가 파송한 110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사역할 수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는 또 9.11 사태 이후, 침례교 선교사 가운데 중동지역에서 순교한 선교사가 11명이라고 밝히고, 그 가운데 2명이 오레곤과 레이크 우드 출신 선교사라고 밝혀 숭고함을 더했다.

아담스 박사는 “특히 6년 전 순교한 레이크우드 출신 선교사님은 시신을 아직 찾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며 “전 세계에서 수 많은 위험 속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 시애틀 한인 목사회,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아름다운 초대



미주 남침례교회 한인교회총회 2012 사모 수양회에서 함께 웃음을 짓는 사모들.

시애틀 목사회(회장 김철곤 목사)가 이민목회의 가장 귀한 동역자인 사모들을 위한 자리를 만든다. 목사회는 오는 5월 24일(토) 오전 11시 30분에 시애틀 놀스 게이트 몰 블루핀에서 시애틀 지역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사모들의 사역을 위로할 계획이다. 목사회는 참석한 모든 사모들에게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많은 사모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기도하지만, 반면에 큰 외로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성도들은 목사의 아내를 독립된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한 교회의 사모, 혹은 한 목회자의 사모로 인식한다. 많은 이들이 사모를 소개할 때 사모의 이름을 말하기 보다는 목사의 아내, 교회의 사모로 통칭하기에 그들의 외로움을 더 커져만 간다.

또 한편으로 성도들은 나름의 고충과 교회의 문제를 사모에게 털어놓기도 한다. 더불어 사모들은 남편에 대한 좋지 않은 말도 여과없이 듣게 되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 더욱이 사모들은 ‘교회와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책임도 떠안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책임져야 하는 사례도 어

렵지 않게 보게 된다. 목회자들 역시 쉽지 않은 이민 목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목회자의 경우 교협이나 목사회 또는 교단 및 친목단체에서 서로 자유롭게 만나 대화하며 힘든 이민목회 사정들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사모들은 이런 통로가 전혀 없어 그들의 아픔은 더욱 크다. 타주의 경우 한인 교회연합회에서 사모분과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목회 동반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애틀 목사회 김철곤 목사는 “사모들은 절제와 운운, 헌신과 순종으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뒷받침하는데 성심을 다했지만, 남편의 사랑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양보해야 하고, 성도들로부터 성경적 지식, 기도의 능력은 물론, 식사 준비, 교회 청소, 친교와 교제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으로 기대 받으며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리를 통해 목회자 사모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초대의 말을 전했다. 목회자와 동반 참석도 가능하다.

문의: 425-444-1669 (장영준 목사) 김브라이언 기자

### 워싱턴교협, “제4회 어린이 찬양축제” 연다

싱그러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어린이들에게 꿈과 소망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사역으로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인환 목사)가 주최하는 제4회 어린이 찬양축제가 어린이 주일인 5월 4일 오후 5시 버크 소재 필그림교회(담임 손형식 목사)에서 열린다.

올해 어린이 찬양축제는 필그림교회, 베다니장로교회, 워싱턴한인장로교회, 커뮤

니티교회, 소명감리교회, 청교도교회, 온누리드림교회의 어린이들과 에벤에셀팀이 출연하여 합창, 연주, 워십댄스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갓스이미지 합창단과 워싱턴소리창 김은수 명창의 특별 순서도 마련된다.

문의: 301-526-7550(회장 최인환 목사), 571-830-8820(총무 박상섭 목사) 워싱턴교협 웹사이트: www.cckgw.org 조요한 기자

### O.C./앨버틴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미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달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성도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전 1:00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Youth 예배 오전 10:3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담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목)  
금요일 오후 7시(계시목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 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 (Harbor + South)  
T. (949) 285-0619 / eb.church7@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으로 누리는 성도의 삶! 성도와 구원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채움)

EM예배 오전 10:00 (FC채움)  
오후 12:30 (분당)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김민재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org

주일예배 오전 10:45  
EM강아예배 오후 12:45  
금요강아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린예배 (수) 오후 7:30  
성명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엘바인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최상준 담임목사**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관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엘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 (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지 사른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균형잡힌 영혼구원과 해를 넘겨 나라를 이끄는 삶! 삶! 사랑과 기쁨을 감동시키는 주의 부름을 받고 인도하는 신도들!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레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0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한미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영명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 주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밀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 351-0124 (Cell), (562) 475-4323 (Church)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필요 선교학교 오후 7:30  
회오 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토요일 오전 06: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인준석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월-금)

**주희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김훈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 세탁장,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 “한국교회와 선교의 장래, 지도자 개발에 달려있다”

##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63회 정기논문발표회 “한국교회와 리더십” 박기호 교수 발표

한국교회의 개혁을 논하면서, 리더십의 문제가 제일 크다는 지적들이 많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한국교회와 리더십”이란 주제로 제 63회 정기논문발표회를 가졌다. 주제 강사로 나선 박기호 교수(풀리신학대학원)는 “선교적 관점에서 본 지도자 개발”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국교회가 인재를 길러내야 함을 힘있게 말했다.

박기호 교수는 “사람을 키우고 개발하는 일은 리더십에 있어서 최고의 소명”이라고 강조하고, 한국교회를 갱신시키고 지역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킬 지도자 개발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그는 “한국교회와 한국선교의 장래는 지도자 개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박기호 교수는 한국사회가 인재를 키워주는 풍토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지도자들을 개발하는 일”이라고 상기시켰다. 다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성 목회 지도자들과 선교 지도자들은 지도자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개발해 일하게 하려 하지 않고, 다



박기호 목사.

른데서 개발된 사람들을 데려다 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목회와 선교 지도자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일이 더디더라도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지도자들을 개발하는 일을 사역의 우선 순위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효과적인 지도자들은 지도자 선발과 개발을 우선적인 기능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한국교회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 위해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다스림 부흥과 갱신을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흥과 갱신은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바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기존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작하고, 실력 있고, 유능한 선교적 지도자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나부터 바로 서야 함을 강조한 박기호 교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섭리 속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주님의 주도하심에 적극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 ▶지도자 개발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고 평생에 걸친 과업이다 ▶개인의 성공이나 개교회 성장보다 하나님 나라 도래를 추구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지도자는 청렴 결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충성해야 한다 ▶각자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사역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제자도를 갖고 나누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효과적인 사역은 사랑 됨됨이에서 흘러 나옴을 믿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제56차 정기논문발표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람이 지도자의 삶과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6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박기호 교수의 발표 외에도 Frank A. James 총장(Biblical Theological Seminary)이 주제 강연을 전했으며, 이어 100분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후에는 각 분과별 주제발표와 자유발표가 이어졌다.

Frank A. James 총장도 “존 칼빈과 제네바 선교 정신”이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만약 칼빈이 개혁 신학의 영도자라면 개혁주의 장로교회 교인들은 성경 신학에 깊은 책임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 중에

경건을 양산하고, 최고의 목회자들을 개발하고, 선교적 전망으로 특징 지워야 하는 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개혁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이러한 속성들을 장려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들은 개혁 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실패한 것이고, 확실히 그 자신들을 칼빈주의자들로 부를 권리를 상실했다”고도 했다.

학회 행사가 마무리 된 후 열린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학회장으로 권혁승 교수(서울신대)가 선출됐다.

오상아 기자

# 이찬수 목사 “거룩한 분노, SNS 쏟아내는 것만으론 안 돼”

## 세월호 관련 두 번째 설교... 어두운 현실 속 ‘세 가지 행동지침’ 제시

지난주 ‘세월호 관련 설교’로 논란이 일었던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가, 홈페이지에서 밝힌 대로 27일에도 관련 설교를 계속했다.

제럴드 시처의 책과 동명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대하 7:13-14)’를 제목으로 설교한 이찬수 목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제 마음의 고통한 질문 하나는, 우리 이웃이 이렇게 끔찍한 재난을 당해 울고 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안산과 진도 현장을 오가면서 봉사하는 ‘다림쥐 택시’ 이야기를 어제 전해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답과 같이 느껴져 설교 패턴을 다 바꿨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는 ‘슬픔을 당한 이웃과 더불어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롬 12:15)’이다. 그는 “세월호에서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전국에서 사고 현장으로 몰려가 슬픔 당한 이웃들을 위해 2천 명 이상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진도군정에는 구호품을 전하고 싶다는 전화가 쇄도해 업무

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한다”며 “우리 교회도 곧 창립 12주년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모은 헌금으로 슬픔 당한 안산의 이웃들을 위해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계시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이 목사는 “한 중학생이 이번 사고 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고를 막지 않으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그 질문을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경고의 말씀을 주시려는 것입니까?’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실태를 보면, 지금까지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기적 아니었나”라며 “그러면서 문득 후회 오늘 이찬수 목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일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목사는 “매 맞고 돌아서면 너무 아프니,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며 “이렇듯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말도

안 되는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영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찬수 목사는 이러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행동지침’도 제시했다.

먼저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회복해야 한다. 이 목사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분노와 울분을 수용하셨고, 시편을 봐도 하나님께서 섭섭함과 항변을 허용하 계신다”며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교회 잘 다니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 대해 울분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길 원하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번 참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실한지 잘 알게 되지 않았나”라며 “저는 선장의 만행보다 더 좌절되는 것이 이 나라의 타락한 시스템”이라고 말한 후 세월호 관련 여러 기사들의 제목을 불러주기도 했다. 그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의 ‘말세에 고통하



이찬수 목사.

는 때가 이르리니...’ 하는 말씀으로, 극도의 자기 사랑과 돈 사랑에 대한 것이 떠올랐다”고도 했다. 또 “거룩한 분노란 무엇인가”라며 “SNS에 울분을 표시하고 거침없이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일부 맞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제대로 된 울분을 표하기 위한 ‘침묵’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계를 예로 들면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많은 정치가들이 오늘 이 시대의 타락한 정치에 울분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기에 동화되지 않은 채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잘못된 여러 시스템과 관행을 고치는 데 몸을 내던지는 ‘크리스천 정치가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두 번째 지침은 ‘나 자신의 회개’이다. 이찬수 목사는 “선장과 선원, 선

주에 대해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 되고, 아이성의 참패 후 야간을 심판했듯 잘못을 따져 엄벌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 자신도 그 일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아이성의 참패 후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회개했듯, 우리도 자신에 대해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 이 목사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물론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한반도 땅에 임하시기를 구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아픔이 한국교회의 회개 운동으로, 저 같은 목사들의 회개 운동으로 연결되어 다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다음 주인 5월 4일에도 관련 설교를 한 차례 더 전할 예정이다.

이대용 기자



#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전인치유 한의사가 되는길."**

**"가주면허 100% 합격률, 취업 훈련, 자체 유학비자 발급, 일대일 임상지도"**

- 입학자격 : 대학 60학점 이수하실 분, 대학 60 학점 이수 하신분, 대학 졸업자, 의료계 종사자( 간호사, 물리 치료사, 약사, 의사, 카이로 프랙터)
- 입학 : 수시 입학 상담
- 입학문의: 562) 965-5112 / 김성일 박사 gsu\_inc77@yahoo.com

**부설**

**단기 의료 선교 훈련반**

단기 의료 선교 도우미 사역 준비

양·한방, 간호사 보조 및 견학

각교회 의료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받습니다.

\* 대학병원안내: 진료시간 월-금 9:00-7:00 pm 토: 10:00-3:00 pm  
경험많고 유능한 교수의료진 서비스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9047 E.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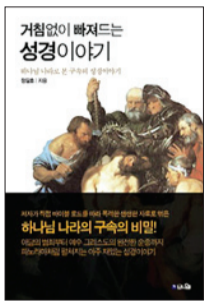
# 신·구약 성경부터 2 천년 기독교 역사까지 파노라마로... “거침없이 빠져드는” 시리즈

## 〈거침없이 빠져드는 성경이야기〉와 〈거침없이 빠져드는 기독교 역사〉

브니엘출판사에서 <거침없이 빠져드는 성경이야기>와 <거침없이 빠져드는 기독교 역사>를 잇따라 펴냈다.

<... 성경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풀어 나가고 있다. 저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대학에서 유학하며 현장 답사를 통해 신·구약 시대의 역사와 지리를 직접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저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기록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며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거침없이 빠져드는 성경이야기 | 정길호 | 브니엘 | 432쪽

책은 천지창조부터 요셉까지, 출애굽 40년, 여호수아부터 사사들의 시대, 왕국 시대, 왕국 멸망 후 포로와 귀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요한계시록까지 등 총 7부로 이뤄져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자 했고 밝혔다. 책을 읽으면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대충 파악할 수 있다.

저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려 했다”며 “책을 통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왕권, 통치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아(마 6:33)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갈 수 있을 소망한다”고 전했다.

<... 기독교 역사>는 세계사 속에 숨어있는 흥미진진한 기독교 이야기를 캐낸 <우리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기독교 역사>의 유재덕 교수가 쓴 책이다. 5년 전 작품의 개정판으로, 불분명한 표현들을 바로잡고, 초판에 미처 포함시키지 못한 내용들을 추가했다. 이 책도 2천 년 기독교



거침없이 빠져드는 기독교 역사 | 유재덕 | 브니엘 | 432쪽

역사를 한눈에 훑어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려 집필됐다. 저자는 굵직한 사건들이나 대표적 인물들만 나열하는 대신, 전체적 상황과 함께 지금껏 조명을 받지 못한 인물들을 아우르면서 재미를 잃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1900년대 이후 부분에서 동방 정교회와 발전, 변화하는 로마가톨릭을 소개하고, 종교개혁 당시의 정치와 세계관 변화에 대해서도 설

명하고 있다. 기독교 초기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당시 대(大)화재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대해 “역설적이지만, 기독교를 종교로 간주했던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라 평가하기도 하고, 당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까닭에 대해 당시의 저작을 토대로 분석하기도 한다.

저자는 “때에 따라서는 낮은 역사적 사실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 2천년 역사를 개인적 정서의 무게와 상관 없이 꾸준히 살펴 보면 얻게 될 소득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서 얻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은 현재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한다.

이대웅 기자

## 역발상으로 기독교 복음 제시하는 ‘만화책’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저자는 가볍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신론자뿐 아니라 무신론자도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를 찾아가는 경우(추구), 또 하나는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그 신이 다가오는 경우(계시).

그러면서 세계 5대 종교인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에 대해 설명합니다. 진짜 신이 계시로 말씀

하신다면, 그래도 큰 종교가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는 설정입니다. 먼저 불교는 욕망을 근절하여 열반에 드는 것이 최고 목표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교는 종교가 아닌 철학이라서, 윤리적인 도움은 되지만 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힌두교는 자아를 육체적 욕망에서 해방시켜 세상 혼과 합치시키고 윤회를 피하여 무한 세계에 이르

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다는 범신론의 종교라고 설명하고, 이슬람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을 끊임없이 행위와 규범의 노예로 만듭니다.

반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신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는 유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은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증만 주고 더 이상의 서술을 멈춥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책 초반부에서 기독교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결론까지 말한다면 약간의 반발심도 생길 것 같은데, 공평하게 지면을 배분하며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편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기독교를 멀리하는 16가지 이유’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말 그대로 불신자 입장에서 기독교를 보는, 아름다운 역발상을 한 거죠. 몇 가지만 예를 든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 박영덕 | 생명의말씀사 | 224쪽

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을 그대로 두는가? 진화나 창조냐? 교회 나가는 나쁜 사람과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착한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인간이 연약해서 신을 만들었다.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겠다.’ 기록하고 보니 불신자들의 관심사지만, 성도들의 동일한 관심사라고 생각되네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만화로 답을 주니 웬지 편안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참 모습’이라는 주제로 조금씩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인간, 예수님’ 등에 대해

개론적인 설명을 한 후,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임을 단계를 밝아가며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신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를 자신의 경험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면서 인정하고 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정말 불신자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불신자나 예배를 떠나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책이 될 것 같네요. 기독교 신앙을 만화와 같은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푸는 것은 참 좋은 시도라 생각되고, 그러한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이런 책들을 많이 출판하면 좋겠다는 기대도 해 봅니다. 하늘뜻심심지기 이훈 목사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쇼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2달분 \$60

**배배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OPERA HOUSE Bakery**

“교회 행사용 CAKE 및 빵 주문시 할인해 드립니다”

operahousebakery@gmail.com  
T. (213)384-1999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웨딩케익 및 단체주문 환영



# 터놓고 말해 본 '교회 안의 성(性)과 스킨십'



교회탐구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 한국교회탐구센터, 4차 포럼서 논의 청년들 뜨거운 관심 보여



강연하고 있는 김지윤 소장.

한국교회탐구센터(소장 송인규 교수) 주최 제4회 교회탐구포럼 '교회의 성(性), 잠금해제?'가 26일 오후 서울 창천감리교회 맑은내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성'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참가자가 물려 예정 인원보다 60명을 더 수용했으며, 별관에 50석을 추가 마련하고 인터넷 생방송까지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패널토의와 청중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포럼은 tvN에서 <김지윤의 달콤한 19>를 진행하고 현재 <로맨스가 더 필요해>에 출연 중인 IVF 간사 출신 김지윤 소장(좋은연애연구소)의 특강 '청춘, 연애, 그리고 섹스'를 시작으로, 정재영 교수(실천신대의 '기독교 청년의 성의식'), 이상원 교수(홍익대의 '성(sex)이란 무엇인가'), 송인규 교수(합동신대의 '스킨십을 청문회에'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스킨십? '통속적 책임' 아닌 '생명 출현에 대한 책임'

진정한 친밀감, 육체적 관계 아닌 갈등 해결하면서

김지윤 소장은 지난 3년간 300여 곳의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다니며 청소년 및 청년들을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오늘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김 소장은 취지에 대해 "성, 특히 기독교인들의 성은 절실한 고민이고 뜨거운 이슈이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의 성을 잠금해제해 청년들의 고민을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대책을 모색하는 장이 필요했다"며 "정답을 드리기는 어렵더라도, 중요한 단추를 끼울 수 있리라 본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남성 전도사와 교제하면서 잠자리까지 가졌지만 헤어진 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여성 청년, 부모의 불화로 자주 집을 비우고 '교회 오페라'와 친밀하게 지내다 성관계까지 갖고 임신과 낙태를 경험한 후 홀로 남아 하나님께 죄책감을 갖고 있는

여성 청년, 청년부 내에서 교제하고 잠자리를 가졌지만 마음이 바뀌어버린 남녀 청년 등의 경우를 들려줬다.

특히 마지막 경우 '성관계를 가졌지만 마음이 떠났는데, 그 사람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굉장이 많았고, 고등학생들 중 90%의 질문은 '정말 만지면 안 되나요? 만지고 싶어요' 라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연령대가 더 밀로 내려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적지 않다는 걸 함께 나눴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간단한 사연이지만 매우 중점되고 수위도 높다고 생각될 수 있다"면서 "체감할 때 이것들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 보기는 어렵지만, 교회 안에서 말하기는 어려운 이야기들"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교회 안에서 성적으로 날카롭고 분별력 있으며 분명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교역자들 중 본인이 그 관계를 뛰어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르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키키에 보고서의 서문 "인간의 성문제는 단지 학문적 내지 개인적 관심의 대상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정치적·법적·종교적 중요성을 갖는 지식과 경험의 영역"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성은 육체적 일 뿐 아니라 굉장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년들이 쌓아놓은 이야기는 많고 스토리도 복잡하데, 해결점은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회는 다각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라는 '어디까지 만져도 될까요?'에 대해서는 "가장 안타깝다"며 "단둘이 있는 순간, 우리가 말해 준 답이 생각 날까? 말한다 해서 지킬까? 개인차가 있을 텐데 어떻게 정할까?"라고 반문했다. 김 소장은 가장 마음 아팠던 사연으로 "임신하고 낙태했지만, 상대가 그냥 떠나가 버리면서 죄책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라며 "그런 이들의 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사랑했어야 했는데, 이를 듣는 때만큼 참담한 순간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소장은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이토록 나와 너를 아프게 하고 청춘에 큰 상처를 남기는가"라며 "그래서 요즘은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는 통속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책임진다고 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스킨십과 섹스가 가져올 수 있는 생명의 출현에 대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책임과 함께 가는 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사람들은 사랑하는 만큼 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육체적 관계가 아닌 갈등을 해결하는 관계 위에 생긴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낙태율이 34만건이고, 이 중 30만건 이상이 불법 낙태이며, 매년 미혼모 1만명이 출산을 하고 미혼모 숫자가 16만, 임양이 매년 2,500여명에 달하는 상황. 김 소장은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때에 성이 큰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다"며 "나 자신의 성에 대한 고민을 뛰어넘어, 이로 인해 신음하는 사회에 대해 얼마나 책임의식을 갖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로 특강을 마무리했다.

혼전 성관계, 무조건 정죄보다 대안 마련해 줘야

인격적 결단으로 조절 가능... 성관계는 결혼 안에

이후 정재영 교수는 글로벌리서치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4일간 온라인상에서 실시된 기독교 청년의 성의식과 성경행 조사결과를 분석·보고했다. 정 교수는 설문문을 토대로 "기독교 청년들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이성교제나 스킨십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성 관련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성 경험이 있는 이들과 없는 이들을 구분하여 이성교제 단계에 따른 적절한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관계만이 아니라 건전하고 행복하게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 때문에 결혼 제도 밖에서 성관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 혼전 성관계를 무조건 정죄하기보다는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교수는 성육과 성교에 대해 통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타락 이후 왜곡된 여러 성행위들을 비판하고, 인간의 성이 '인격성' 안에 통합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발정기'가 없는데, 이는 인격적 결단으로 성육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인간의 성이 인격성 안에 통합돼 있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동물은 순간적 쾌락에 만족하나 인간은 쾌락의 연속화를 추구하고, 성교가 끝난 후 죄책감과 냉담에 빠진다"며 "이로부터 성교의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결혼으로, 결혼이 없다면 성교 후 관계가 파국으로 끝나기 쉽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인간의 성육은 창조적인 승화가 가능하고, 에로스적 특징 뿐 아니라 아가페적 특징이 내재돼 있다"며 "기독교의 아가페는 성관계를 완성시키고, 남성의 자연적 일부다처 성향을 강하게 통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정한 인격적 연합과 사랑은 현실적으로 결혼 밖에 없고, 성교는 결혼관계 안에서 이뤄져야 함은 종말의 날까지,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저서이자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중시하는 중요한 표지"라고 강조했다.

스킨십, 자기발견 기회 제공하나 건전한 사귀 어렵게 해

구체적 규칙 설정, 율법주의·용통성 저하 등 문제 야기

이후 송인규 교수는 스킨십의 진화와 재평가를 시도했다. 송 교수는 "최근 30년 사이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성적 욕구에 대한 용어나 표현이 보편화되고 인간을 성적 존재로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옷차림과 관련한 성적 자기표현 시도가 도드라지는 등 성의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며 "새

로운 시대의 생활환경은 성적 욕구의 분출과 탐닉에 적절한 여건을 제공했고, 특히 미혼으로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스킨십을 출구로 삼기 시작했다."

송 교수는 "스킨십은 성과 관련한 자기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성교제의 본유적 특징을 드러내며 이성교제의 친밀성을 산출하는 유력한 방안이자 특정한 경우 두 사람 사이의 교제나 사랑을 확인·강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경우 스킨십은 남녀 사이의 만남을 성적 추구 일변도로 몰아가면서 건전한 사귀의 기회를 박탈하고, 과도한 또는 그릇된 기대로 말미암은 당사자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인격적 가치 저하로 인해 관계의 소원이나 단절을 야기하며, 스킨십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현재 및 미래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스킨십은 때로 임신 및 낙태와 성병 등 현실적 어려움과 번폐(煩弊)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는 스킨십에 대한 네 가지 입장으로 모든 종류의 스킨십을 부적절하다고 보는 엄정한 금지(prohibition)와 선을 그어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조치하는 철저한 단속(regulation), 신중한 허용(permission)과 과감한 완화(relaxation)를 소개했다.

송 교수는 이에 대해 "스킨십의 위험과 폐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규칙을 정하는 것은 율법주의화 우려와 융통성 있는 대처의 어려움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공적 장소에서도 허용되는 행위 △이성간 친밀성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행위 △혹시 헤어진다고 해도 상대방과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로 지낼 수 있는 행위 △다른 그리스도인과 결혼한다 해도 배우자에게 부끄럽거나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는 행위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순서대로 손 잡기나 포옹, 껴안기, 가벼운 입맞춤 정도의 예를 들었다.

이대웅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KOBE PEARL LAS VEGAS

“시작됐다!”

진주 전문회사 고베펄 엘에이 한인타운 과 가든그로브에서 펼치는

# 사상최대물량 진주보석쇼

2014년 5월1일 - 5월 3일 (목금토)

엘에이한인타운 LOS ANGELES

5월 1일(목) - 2일(금)까지 2일간  
로텍스호텔 2층 연회장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Gramacy DR + Olympic Blvd)

가든그로브 GARDEN GROVE

5월 3일 (토) 단하루  
라마다호텔 2층 연회장

100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Brookhurst Way + W Garden Grove Blvd)

고품격 프리미엄 진주제품 대거 전시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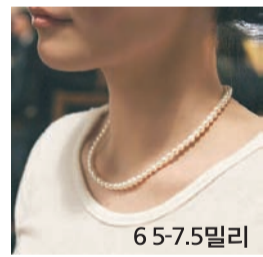


고베펄 어머니날 맞이 진주보석쇼  
HAPPY MOTHER'S DAY



고베펄 천연양식 진주목걸이  
파격 원가 처리 최저가 판매

일본공법  
한국세공



6.5-7.5밀리  
(9.25 Silver clasp 실버장식)  
▶ \$499 ▶ \$99 ▶ \$88 부터



6.5-7.5밀리 30조 한정  
2줄짜리 Double Strands  
(9.25 Silver clasp 실버장식)  
▶ \$1599 ▶ \$599 ▶ \$188 부터



7-8밀리 (14K 장식)  
▶ \$999 ▶ \$199 ▶ \$188 부터

8-9밀리 (14K 장식)  
▶ \$1299 ▶ \$299 ▶ \$258 부터

8-9밀리 (14K 장식)

9-10밀리 (14K 장식)  
▶ \$1499 ▶ \$399 ▶ \$358 부터

\* 흰색 이외에도 다양한 색상과 길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6인치 제품 기준입니다. 길이나 색상에 따라 추가가격이 발생하실수 있습니다.)  
\* 고베펄 진주목걸이는 일본공법 / 한국세공 제품입니다.  
\* 모든 고베펄 제품은 애프터서비스와 보증서가 첨부됩니다.

NOW OPEN

고베펄 벌몬 갤러리아 매장  
(5가 와 벌몬 갤러리아 마켓내)



4월 30일(수)까지 그랜드오프닝세일!



UP TO 80% SALE

“경제적인 제품부터  
최고급 명품진주까지!”

남양진주 . 해수진주 . 아코야진주 등 5000여점 전시 특가 판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전시 특가판매. 경제적이면서 화려한 천연양식진주 부터 최고급 품질의 아코야, 남양진주, 타히티 흑진주 등 4000여점의 진주보석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행운의  
복돼지 증정

300불  
이상 구매시  
선착순증정

\* 수량의 한정상 1인 1팀  
복돼지 1개 증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2015 Silver 정품)

**BIG SALE**  
일본산 인공 핵진주 \$88 컬렉션  
무조건 원가 대행진

일본산 인공 핵진주?는 진주거부의 대항조개패를 분쇄하여 진주완형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남양진주 색상을 입혀준 일본에서 제작되는 프리미엄 인공진주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원형모양으로 흠이 없게 장원으로 많이 받으시는 제품입니다.

핵진주 브로치 Shell Pearl Brooch \$399 ▶ \$159	\$88	핵진주 반지 Shell Pearl Ring \$399 ▶ \$159	\$88
핵진주 귀걸이 Shell Pearl Earring \$399 ▶ \$159	\$88	핵진주 펜던트 Shell Pearl Pendant \$299 ▶ \$159	\$88

88불 인공핵진주 컬렉션 제품은 수량과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서두르세요! 실버세팅 제품입니다.

고베펄 페이스북 LIKE 누르고 선물도 받아!!  
FACEBOOK.COM/KOBEPEARL

고베펄은 고객님들께 정직한 판매와 감동의 서비스를 최고의 목표로 합니다.  
고베펄은 고객님들로부터 중고 보석제품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가공 및 Recondition 제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고객님들께 최상의 신제품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KOBE PEARL LAS VEGAS  
문의 전화 213.389.3887  
진주전문회사 고베펄 창립 10주년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라스베가스 본점  
953 E. Sahara Ave #E34B Las Vegas, NV 89104

로스앤젤레스 지점  
440 S. Vermont Ave #110 Los Angeles, CA 90020



# 고베펄사, 마더스데이 맞아 한인타운서 사상 최대

## 진주보석 쇼 연다



행운의 복돼지 열풍...  
오픈 매장 프로모션으로 복적!!

### - 고베펄사 마더스데이 LA, GG 행사 일정 -

[엘에이 한인타운 행사 일정]

일시 : 2014년 5월 1일(목)-2일(금), 2일간  
장소 : 로텍스 호텔 2층 연회장  
주소 : 3411 W Olympic Bl LA CA 90019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행사일정]

일시 : 2014년 5월 3일(토), 단 하루  
장소 : 라마다 플라자 호텔 2층 연회장  
주소 : 1002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 영업시간 :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진주전문 고베펄 사가 마더스데이를 맞아 엘에이와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서 사상 최대 물량의 진주보석 쇼를 개최한다.

오는 5월 1일(목)부터 3일(토) 까지 3일간 엘에이 로텍스 호텔과 가든그로브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펼쳐지는 이번 고베펄 사의 진주보석 쇼는 업투 80%에다 10% 더 할인 하는 무조건 현금회전 성격의 대박세일에다 일본 공법에 한국세공으로 제작된 진주목걸이와 귀걸이 반지 등 사상최대 물량인 5천여 점 이상의 진주보석들이 대거 전시된다.

특히 고베펄 사의 진주목걸이는 실이 아닌 와이어로 직접 제작되고 있는데 목선이 착달라 붙고 찰랑찰랑대는 '학 스타일'로 널리 알려지면서 미주 한인여성들에게는 외출 패션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인기 주얼리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고있는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진주보석 쇼에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 선물용으로 펜던트와 브로찌 등을 대거 준비해 관심을 끌게 하고 있다. 팔과 어깨의 통증을 멈추게하면서 입소문이 난 프리미엄 초강력 자석 팔찌도 이번 진주보석 쇼를 통해 한인 동포들에게 첫 선을 보이면서 큰 관심을 끌게 하고 있다.

엘에이 한인타운 벌몬 갤러리에 매장을 최근 연 고베펄 사는 이번 진주보석 쇼에서 아코야 진주 목걸이와 반지 귀걸이 등도 대량 선보이는데 결혼예단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특히 종전보다 10% 더 내린 일본산 인공핵진주 반지 펜던트 브로치가 88달러, 천연 양식 진주목걸이 88달러부터 등 다채로운 진주보석을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고베펄 사의 이색 프로모션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진주보석 300불 이상 구매시 행운의 복돼지 증정도 이번 행사에서 물론 빼놓을 수 없다.

이 복돼지 행운을 잡기위해 얼마전 오픈한 진주보석 매장에 고객들이 몰리고 있다.

이 업체가 최근 엘에이 한인타운 벌몬 갤러리아 마켓에 첫 매장을 오픈하면서 프로모션 행사로 행운의 복돼지를 내놓자 고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복돼지가 인기를 끌면서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진주보석 매장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는 것이다.

진주보석 전문업체인 고베펄 사는 지난 1일 벌몬 갤러리아 마켓 내에 상설매장을 오픈하면서 공짜선물 프로모션으로 300불 이상 진주보석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행운의 복돼지를 증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매장 오픈 이후 20일동안 준비했던 100개의 복돼지가 모두 소진돼 다시 한국의 복돼지 생산 공장에 200개를 추가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베펄 사가 매장 오픈 기념으로 준비한 이 행운의 복돼지는 1백불 상당의 925 실버 정품 두돈 반으로 작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된다.

특히 매장에 들른 고객들은 오픈 기념으로 진주보석도 싸게 사면서 복돼지를 공짜선물 받아 올해 불경기 속에서도 행운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처럼 즐거운 표정들이다.

고베펄 사 관계자는 복돼지 공짜선물로 오픈하자마자 예상을 넘을 정도로 매출이 급증했다며 이 프로모션을 당분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 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체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기능 개선제 **PRO-Z**

당뇨병의 원인  
이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마테일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해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이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마테일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해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 가능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간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스페셜 할인가  
2병 \$120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적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과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창고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닝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아채만두 • 올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자신의 효능을 느껴보십시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동의당뇨환!

**동의당뇨환II**

당뇨병, 이제 3일이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의당뇨환II의 특징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1. 100% 순수 한국산 천연 한약재만을 사용
2. 처음부터 혈당 강하제, 인슐린 주사를 끊게해 줌
3. 1~2주내에 정상 혈당치로 돌아옴
4.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최대한 합병증을 억제해 줌
5. 식후 3회만 복용합니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2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 목 감기(편도선염) \* 기관지 확장
- \* 코감기 및 비염 \* 폐기종
- \* 기관지염 및 천식 \* 폐성유학
-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폐렴
- \* 아토피성 피부염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wi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4 스페셜 LEASE 프로그램과 2013 모델 스페셜 **창고정리 대세일!!**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다 나가기전에 빨리 전화주세요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오버플로잉교회 선교팀이 과테말라를 방문해 결연아동과 교제를 나눴다.

유독가스가 나오는 재래식 아궁이를 대체할 쿡 스토브를 설치했다.

왼쪽부터 굿네이버스USA의 최고현 간사, 오버플로잉교회 강승선 목사, 오버플로잉교회 선교팀장 제니퍼 최 자매

# 작은 비움 통해 빈곤 어린이의 세계관을 바꾸다

## 아동결연(Child Sponsorship) 통해 굿네이버스 사역에 동참하는 오버플로잉 교회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 빈곤 국가는 가난할 운명이다. 해외 원조금은 부정부패로 인해 원래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지 않고 잘못된 용도로 사용된다. 또 원조는 수혜자의 자립을 막고 의존성을 키운다.”

세계 최대 자선재단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2014년 연례서한(Annual Letter)에서 지적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진보를 방해하는 3가지 오해(3 Myths that block progress for the poor)”의 내용이다. 이 재단은 ‘가난한 국가들이 가난한 상태로 머물 것이라는 추측은 잘못되었다. 터키, 칠레, 말레이시아, 가봉 등 당시 빈국이던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1960년대 수준까지 올라갔으며 아프리카 역시 보건 및 교육의 측면에서 확실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원조금이 부정할 곳에 사용된다면 인터넷을 통해 전지구적인 접근이 가능한 오늘날 부정부패는 곧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원조가 의존성을 키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싱가포르 등 원조를 통해 자립을 이룬 예를 들어 반박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에 걸쳐 웨이트리스, 호텔 객실 청소부, 요양원 보조원, 월마트 매장직원 등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의 배신>을 저술한 사회비평가 바버라 에런라이크(Barbara Ehrenreich)는 빈곤에 관한 선입견 하나를 지적한다.

“가난한 자들은 무책임하고 열심히 살지 않으며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고 계획없이 아이를 많이 낳고 결혼하는데 실패한다.”

그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편견이며 “빈곤은 성격이나 의욕 부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빈곤은 돈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고 바로잡고 “가난하면 돈이 많다. 예를 들어 월세나 보증금을 낼 수 없으면 비싼 모텔에서 하루씩 밤값을 내며 살아야 한다. 부엌이나 냉장고가 없으면 비싸고 영양가 낮은 편의점 음식을 먹고 몸이 망가진다”고 설명한다.

기독일보에서는 빈곤 문제 특히 빈곤 아동의 후원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USA의 최고현 간사(Campaign Coordinator), ‘기쁨이 넘치는 제자 공동체’를 추구하는 오버플로잉교회(The Overflowing Church)

의 강승선 담임목사, 오버플로잉 교회 선교팀장 제니퍼 최 자매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굿네이버스 사역에 동참하게 된 계기는?

강승선 목사 : 오버플로잉교회는 청년 10명이 모여 예나하임에서 2011년 9월 25일에 시작됐다. 우리 교회의 비전 중 하나는 선교와 구제를 함께 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교제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다.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길 소망했다.

교회 창립 때 예산의 10퍼센트는 이 땅의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교회가 개별적으로 돕는 데는 한계가 있어 굿네이버스를 통해 구제하기 시작했다. 여러 구호 단체가 있지만 굿네이버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행정비가 가장 적고 후원금 중 수혜아동과 그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에 사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처음 교회 차원에서 11명의 아이들을 돕기 시작해 현재 각 교인 한 사람 당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교회가 본받아야 한다. 재정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가게 된다. 하나님과 의 약속이라 여기기 때문에 2011년 10월 후원을 시작한 이후 한번도 후원비를 보내지 않은 적이 없다.

- 현지 방문 소감은?

제니퍼 최 자매 : 방문의 기본 목적은 현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고 결연한 어린이들을 보고 싶어서였다. 자원봉사 단체와 함께 과테말라를 방문해 일주일 간 머물며 ‘쿡 스토브’(유독가스를 만들어 많은 인명 피해를 낳는 재래식 아궁이를 대신해 설치한 화덕. 장작을 구하느라 학교를 다니지 못하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를 만들어 각 가정에서 기증하고 어린이들을 만나 사랑을 나눴다.

아동 결연이 맺은 실제적인 열매를 볼 수 있었다. 저희가 드린 작은 금액이 최대한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아이들이 저희가 드린 금액에 비해 훨씬 큰 혜택을 받

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아이들을 만지셔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후원금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꼈다. 또 해당 아동에게만 그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공동체에까지 그 재정이 다각도로 쓰여지고 있었다.

- 굿네이버스의 아동결연을 소개한다면?

최고현 간사 : 후원금액은 매월 35달러이며 금액은 아동과 그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된다. 아동에게는 교육, 학비, 학용품이 제공되며 지역사회에는 학교 건물 및 도서관 건립, 낡은 학교 건물 보수, 보건소 설치 등을 지원한다. 또 아동과 결연하면 아동과 편지를 통해 교류할 수 있다.

강승선 목사 : 아직 글을 못쓰는 어린이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이나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 편지와 사진을 통해 교류를 하니 그 아이들에게 마음이 더 간다.

- 후원금 사용은 어떻게 보고하나요?

최고현 간사 : 매년 아동성장 보고서(Annual Progress Report)를 보낸다. 신장, 몸무게 등 신체적인 성장 뿐 아니라 학교를 잘 다니며 학업에 충실한 지에 대해서도 보고한다. 또 그 지역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며 어떤 프로그램과 시설이 제공되고 있는 지 보고한다. 또 연례 아동서신(Annual Child Letter)를 써서 보내고 있다.

- 아동 및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나?

최고현 간사 : 아동 수가 가장 많고 가장 학업 중단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먼저 선별한 후 그 지역 내 아동들을 아동결연 프로그램에 등록시킨다. 미국에서는 과테말라, 차드, 말라위, 네팔, 아이티 등 지역을 주로 후원한다.

- 성도들의 반응은?

강승선 목사 : 교회 내규를 교회 재정의 10%를 굿네이버스 후원금으로 사용하기로 정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 헌금을 하면 그 중 10%는 굿네이버스로 보내진다. 한번도 지체들로부터 이

에 대한 불평을 듣는 적이 없다. 우리 교회에는 25세에서 30세 사이 청년들이 많은데, 이들은 봉사과 섬김을 좋아한다. 특히 우리 교회 비전 자체가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교회의 비전과 굿네이버스가 하고 있는 사역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들을 돕는 것을 기뻐한다.

제니퍼 최 자매 : 교회를 창립할 때 교회 차원에서 아동후원을 한다는 선포에 교인들이 환호했다. 새로운 멤버들은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자신이 아동과 결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랑스러워 한다. 개인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안해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던 것이라 마음이 훨씬 더 쉽게 열려 결연을 결심한 멤버들이 많다. 성도들도 교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후원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해 한다.

-재정적인 도움으로 한계를 지낼 것. 기독교적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최고현 간사 : 굿네이버스는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단체나 국제구호개발기구이기 때문에 성경말씀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현장에 계신 사무장님, 국가 디렉터분들은 모두 크리스천이며 아프리카에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다. 또 현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자교육을 하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아동결연도 지속적으로 아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가족이나 아동에게 돈만 제공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존성만 키울 수 있다. 수혜 어린이가 잘 성장한다면 그 구조 자체가 빈곤을 만드는 구조라면 빈곤이 악순환된다. 따라서 구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 지역 개발을 통해 아동과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Community Development Project)에 힘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농업 기술 교육, 허브 재배 사업 등 지역주민의 자립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을 펼치고 있다. 10년, 20년 후에는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강승선 목사 : 굿네이버스에서 보내주

는 매거진과 영상이나 자료를 보면 깜짝 놀란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현지 전문가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그 지역에 최적화된 개발 사업을 펼친다. 후원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계획한다고 느꼈다.

- 수혜 아동들의 반응은?

제니퍼 최 자매 : 제가 받은 인상은 ‘건강하다’는 거다. 외모가 건강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이 건강하다. 세계 정말 감동을 줬던 한 소녀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 감격해 있었다. 우리의 작은 일이 그 아이의 가정 환경을 유복하게 바꿔주진 못하지만 그 아이에게 세계관이 바뀌는 일이 된다.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소녀로부터 ‘꼭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작지만 큰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꼈다.

많은 가정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어 꿈이 생겼다, 변화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해 한다.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다. 아이들 안에 자기가 귀한 존재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 하듯 제가 다가왔다. 재정이 가는 거지만 재정이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 안에 감사와 희망, 소망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 하나님이 손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 아동결연을 통한 앞으로의 소망은?

강승선 목사 : 저는 선교와 구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달 후원금 35달러가 어린이들의 세계관을 바꾸고 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준다면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한다. 직접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선교가 아닐까. 우리 교회를 통해 다른 교회들도 자극을 받고 동참하게 되길 소망한다. 주디 한 기자



굿네이버스는 기독일보와 함께 제3세계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을 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5세 이하의 아이들 100만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제 한병과 약간의 식량이면 허무하게 끝나는 이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이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네이버스 친선대사 최수종 드림



당신의 나눔만이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후원문의 1-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http://www.goodneighbors.org)

굿네이버스는 UN의 최고 고문기관으로써 1991년 한국인이 설립하여 전세계 32개국에서 구호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Special Event**

**New!**

**2014 ALL IN STOCK HYUNDAI SONATA GLS**

MSRP: \$22,450. 36 month lease. After \$3,499 due at lease signing + \$750 lease cash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89** **+TAX**  
**36 Mon.**

**NEW** **2013 GENESIS SEDAN (TECHNOLOGY PKG)**  
Stock# DU249043, DU247931, 237134

**\$269** **+TAX**

MSRP: \$44,575. 24 months lease. After \$4,999 due at lease signing + \$2000 lease cash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NEW** **NEW 2013 EQUUS SIGNATURE (DEMO)**  
PURCHASE FOR AS LOW AS

**\$45,170** **+FEES**

SAVE UP TO **\$15,000**

Stock# DU070328, DU069919  
MSRP: \$60,170

**DRIVE 현대 Let's GO to 브라질**

오늘 붉은 악마 티셔츠도 받고 월드컵 관람의 행운도 잡으세요!

행사기간: 3월 22일~5월 4일  
자세한 내용은 딜러에 문의하거나 Facebook.com/HyundaiKA 를 참조하십시오  
\*NO PURCHASE NECESSARY. Sweepstakes begins at 12:00 A.M. PDT on 3/22/14 and ends at 11:59:59 P.M. PDT on 5/4/14. Open only to legal residents of the 48 contiguous U.S. and D.C. who are at least 21 years old and licensed drivers. (2) Grand Prizes, each valued at \$20,000, will be awarded. Odds of winning depend upon the number of eligible entries received. Void in AK, HI, PR, and where prohibited. Sweepstakes subject to complete Official Rules, available at [http://bit.ly/event\\_rules](http://bit.ly/event_rules). Sponsor: Hyundai Motor America. FIFA World Cup™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the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and is used under license.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브라질 월드컵으로 가는 행운을 만나자.

- 1 푸엔테힐스 현대를 방문, 현대자동차를 시승하시면 붉은 악마 공식 티셔츠 증정  
\*딜러마다 수량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 2 현대딜러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명에게 2014 FIFA World Cup™ 한국 vs 러시아 경기티켓 및 6박7일 여행권 1인당 2매 증정\*\*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스티브 장 626.513.4006 | 찰리 정 626.513.4981 | 저스틴 길 626.513.4580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